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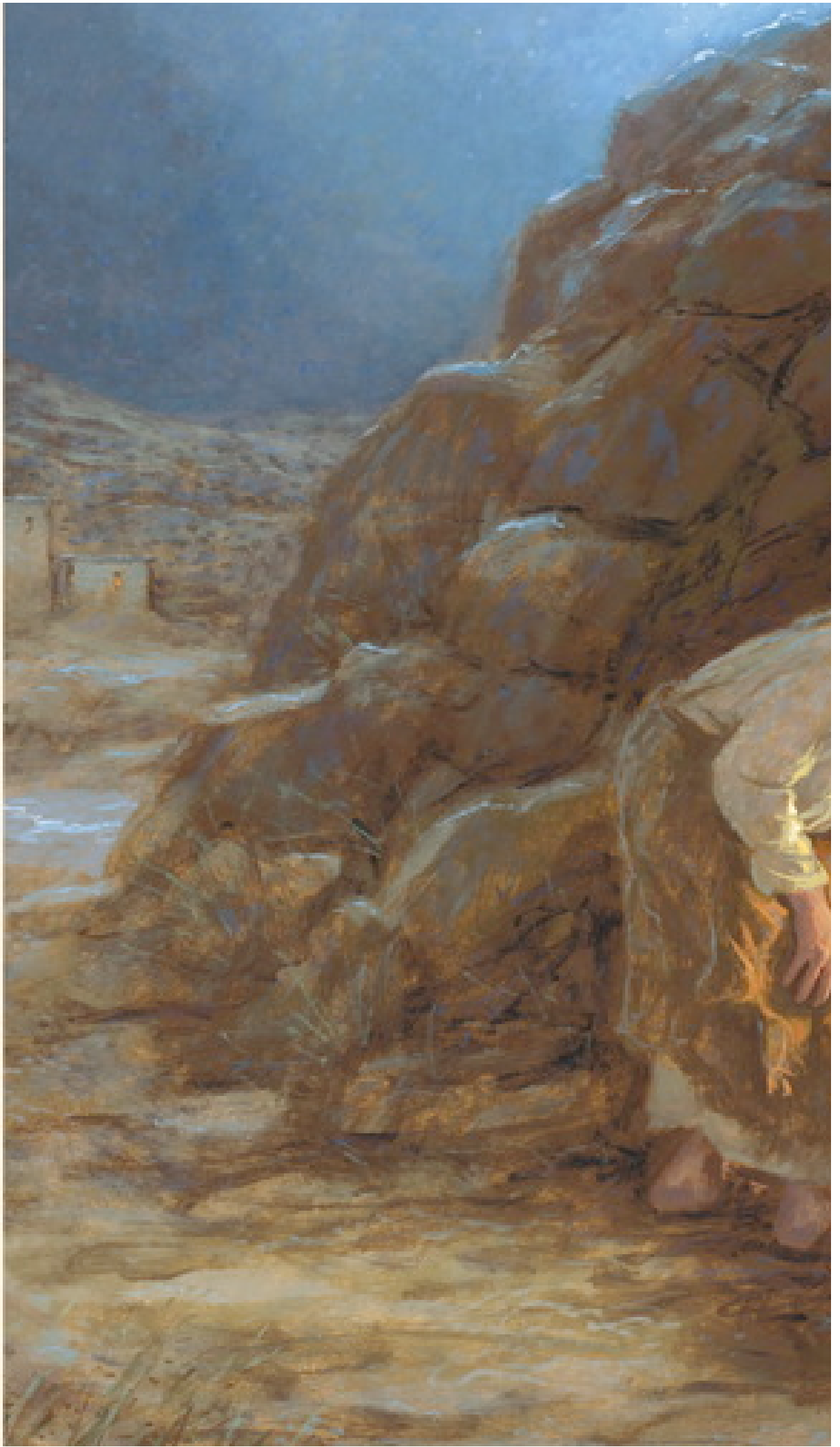
성탄절의 영을
찾음, 15쪽

여관에는 방이 있었다, 8쪽

그 사랑에 놀라며, 28쪽

오려내기: 여러분이 만드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 친8쪽





2008년 12월호, 제45권, 제12호
리아호나 02292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다이어 에프 우호트도르프
심이사도 장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라,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욱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킳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캔들
고문: 케리 데이 코울먼, 케네시 존슨, 요시호기 기루찌, 더블류 더글라스 셉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엠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엠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반즈, 린다 스탈 푸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리앤 포터 그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팔라시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데이 오데카르, 주디스 엠 팔라, 조슈아 데이 피커, 제드 페라스, 전 유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롭니,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엘
선임 비서: 로렐 투서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킳트 벤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로요, 클레트 네베거 오운,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데이 크리스티안, 킴 핀스타커,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케비, 스킳트 엠 웨이, 지니 데이 날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데이 벤슨

통 권: 제513호, 제45권, 제1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8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박 환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인쇄물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잡판 혹은 지시기를 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리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일본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디어, 헝가리어, 힌디어(행행 힌두어 언어에 따라 다름)

© 200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December 2008 Vol. 32 No. 1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리아호나, 2008년 12월호



20 너의 행함을 성별하시리로다



40 내가 기억하는 조셉 스미스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최고의 성탄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8 여관방 날 엘 앤더슨 장로
- 20 복음 고전: 너의 행함을 성별하시리로다 날 에이 맥스웰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자, 생명이며, 희망입니다
- 34 성전으로 모임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 37 일부만 회원인 가족의 성전 축복 케이 퍼즈빌
- 40 내가 기억하는 조셉 스미스
- 44 후기 성도의 소리
가진 것은 적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엘리 데 아퀴노
대륙을 가로질러 온 캐롤 소리 헤더 비침
내 생애 최고의 성탄절 선물 케티 테라사 오르티즈 데 아리스멘디
우연한 가르침 에린 윌슨
- 48 애독자 편지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다음 가르침 제언들은 가정에서만
아니라 교회 공과반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반원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관방”, 8쪽: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승합차에
타고 있다고 가정하고 다
함께 담요 밑으로 들어가 붙어 앉는다.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성탄절 전야를
좁은 차 안에서 보낸다면 기분이 어떻게
토론한다. 그 여관 주인이 어떻게 그
가족에게 봉사했는지 토론한다. 이번
성탄 절기에 가족 모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획한다.

“성탄절 기적”, 12쪽: 가족과 함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나눈다.
노래를 부른 것이 기차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기쁨에
대해 토론한다. 여러분의
가족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성탄절 활동을
계획한다.

“너희 행함을 성별하시리로다”, 20쪽:
돌이나 종이 같이 디딤돌로 사용할
물건을 다섯 가지 선택한다. 각 물건에 이
기사의 소재목들을 붙인다. 해당 부분에



아기 예수, 제레미 윈보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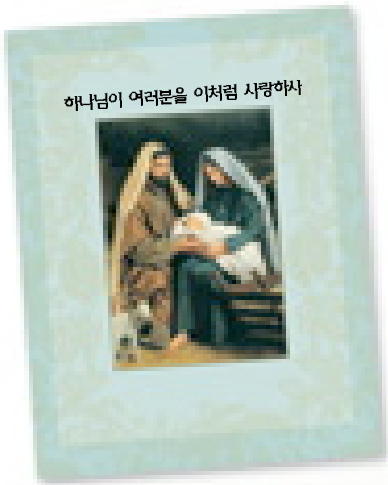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선조들의 땅인 예루살렘에서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니,
그는 처녀로서, 귀하고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 성신의 권능으로 덮으심을 입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앨마서 7:10)

이번 호에 숨겨져 있는 포르투갈어 정의만 반지를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여 의를 선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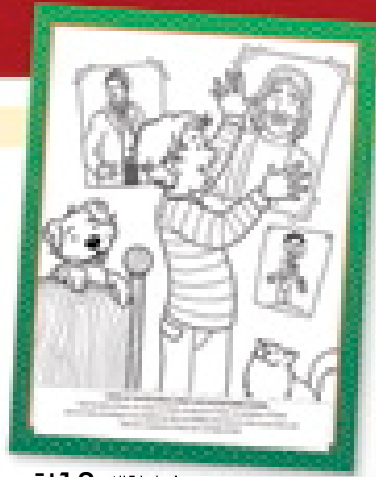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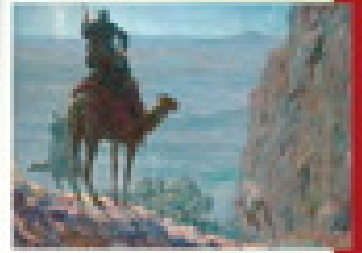
- 7 포스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 12 성탄절 기적 *라이언 캠펠*
- 15 강림 달력: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
- 26 질의 응답: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으려면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8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7 포스터



친13 색칠하기



친2 빛을 따라서

어린이: 친구들

- 친2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제일회장단 성탄절 메시지: 빛을 따라서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들려 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린다 크리스틴슨*
- 친6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보여주기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 친8 예수님의 경이로운 탄생
- 친10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선지자의 순교
- 친13 색칠하기
- 친14 몰래 나누어 주는 이 *살럿 굿맨 맥이완*

표지

예수님의 탄생, 존 맥노튼.

친구들 표지

성탄절 전야 야외극, 마지 올슨.

대해 토론하면서 디딤돌을 하나씩 밟는다. 이 기사에 나오는 성구를 읽는 것을 고려해 본다. 삶에서 직면하는 걸림돌들에 대해 토론한다. 이 기사의 마지막 몇 문단을 읽으며 결론을 짓는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28쪽: “재회의 기쁨” 부분에서 그 선교사가 가족에게 다가가기 시작하는 부분까지 읽는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누가 가장 먼저 그 선교사를 만나러 뛰어갈지 알아맞혀 보게 한다. 이 이야기를 마친 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토론한다.

“몰래 나누어 주는 이”, 친14쪽: 가족과 함께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나눈다. 데이비드는 무엇을 배웠는가? 비밀리에 “몰래 나누어 주는 이”가 되는 그의 모범을 활용하여, 다음 중 하나를 실천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1) 여러분의 지역에서 외롭거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정한다. 그들을 위해 적절한 봉사 활동을 계획한다. (2) 종이에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적고 그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여 이번 주 동안 그 사람에게 비밀리에 봉사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페이지 수는 기사의 첫 번째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선교 사업, 8, 12, 46
친=친구들	성별, 20
가정 복음 교육, 2	성전, 34, 37
가정의 밤, 1, 15	성탄절, 2, 8, 12, 15, 45, 친2, 친8, 친14
가족, 15, 37, 45	속죄, 20, 25, 28
간중, 15	조셉 스미스, 40, 친10
개종, 46	예수 그리스도, 2, 7, 15, 20, 25, 28, 47, 친2, 친4, 친8, 친13
결혼, 37	예수님의 탄생, 친8
경전, 15, 친4	예언, 15
기도, 8, 15, 26	용서, 28
노래 부르기, 12, 15, 45	자애, 2, 8, 44, 47
모범, 37, 47	찬송가, 12, 28
복종, 20	초등학교, 친4
봉사, 2, 8, 15, 친14	평화, 37
빛, 25, 친2	희생, 28, 34
사랑, 7, 28	
상징, 28	





최고의 성탄절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방송 채널마다 성탄절 음악을 내보냅니다. 좋아하는 성탄절 노래를 들을 때 종종 제 마음은 지난 성탄절에 있었던 일들과 집으로 향합니다.

오, 명절에
집과 같은 곳은 없지
그대가 얼마나 멀리 방랑했는지
모든 면에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명절에는 집으로 돌아와야 해
집, 사랑스러운 집.¹

어느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절은 다시 오고, 변함없이 사람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신비로움과 마법 같은 분위기에 휩싸이는 이 절기는 일상의 궤도에서 벗어난 시간인 듯 합니다. 모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우리 마음속에 되살아납니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²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1873~1979)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때만 찾아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이 목숨을 얻는 것이라는 구주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탄절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이 영이 우리의 마음을 형제애와 우정으로 불타오르게 하고 우리에게 친절함 봉사의 행위를 하도록 속삭여 줍니다.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이며, 이것에 순종할 때 ‘지상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는 선한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³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은 성탄절의 영을 활짝 꽃피웁니다. 적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성탄절의 영은 우리 영혼의 창에 등불을 밝혀 주어 바쁜 세상살이를 돌아 보게 하고, 사물보다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합니다. “성탄절의 영(spirit of Christmas)”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마지막 음절(mas을 지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Spirit of Christ)”이 됩니다.

주님을 기억함

성탄절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며 이 절기를 보냅니다. 우리는 옛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첫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은
성탄절의 영을 활짝
꽃피웁니다. 우리는
사물보다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

가렛과 벨리는
아이들을
침실로

데려왔습니다. 두 자매는
침대 밑에 있는 상자 몇 개를
잡아당겼습니다. 상자들
안에는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의 친구들이 준 헌
옷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함께 즉석
패션쇼를 하며 갖고 싶은
옷과 양말, 신발을 고르느라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성탄절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사야가 기록한 다음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미 대륙에서 [성역을 빼앗겼던]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때가 이르며 그리
멀지 아니하니 … 전능하신 주께서 권능으로써 …
흠으로 지어진 성막에 거하시며 … 시험과 …
고통[을] … 겪으리니 …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⁵



이윽고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구주의 탄생을 알린 그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후에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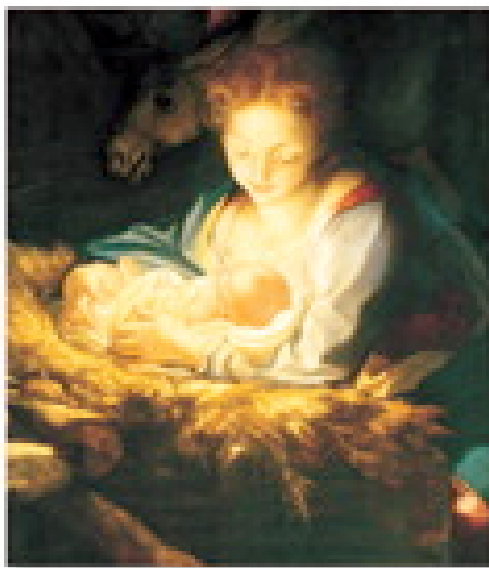
시대는 변하고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성탄절은 늘 성스럽습니다. 이 놀라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우리 자신을 바칠 기회는 실로 무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들 또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쁨을 안겨 줄 마음들이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친절함의 말들이 있습니다. 건네줄 선물들이 있습니다. 보여줄 행위들이 있습니다. 구원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선물

1930년대 초반, 마가렛 키실레비흐와 그녀의 여동생 벨리는 이웃에 사는 코직키 가족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가족은 평생 그 선물을 기억했으며, 그 가족들에게 이 선물은 영감이 되었습니다.

당시 마가렛의 집은 캐나다 앨버타의 투힐스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농업 지역이었습니다. 대체로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던 그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때는 대공황 시기였습니다.

마가렛의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열다섯 명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렛의 어머니는 근면한 분이었고, 아버지는 매우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자녀가 많은 덕분에 노동력도 풍부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언제나 따뜻했으며, 형편이 어려워지만 굶주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커다란 채소밭을 가꾸었고 물물 교환을 위해 사우어크라우트(독일식 양배추 김치)와 코티지 치즈, 사위 크림과 오이 피클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닭과 돼지, 소도



키웠습니다. 가진 돈은 거의 없었지만 가족이 만든 그와 같은 물건들을 가지고 집에서 만들 수 없는 생필품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렛의 어머니에게는 동유럽에서 함께 이주해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평범한 가게를 하나 운영했는데, 그 가게는 지역 사람들이 헌 옷과 헌 신발 등 잉여물품을 기부하거나 교역하는 보급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고용품 중 많은 것들이 마가렛의 가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앨버타의 추운 겨울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유난히도 춥고 매서운 어느 겨울날, 마가렛과 동생 벨리는 이웃에 사는 코직키 가족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의 농장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코직키 씨는 직접 만든 썰매에 아이들을 태워 학교로 데려다 주면서 언제나 학교 안으로 들어가 난로 곁에서 몸을 녹인 뒤에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 가족은 누더기 옷과 마대를 길고 가는다랗게 잘라서 다리와 발을 감싸고 밀짚을 채워 넣은 다음 끈으로 묶었습니다.

마가렛과 벨리는 성탄절 만찬을 위해 코직키 가족의 자녀들뿐 아니라

그 가족 모두를 초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자매는 그들이 초대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탄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가렛 가족은 모두 한낮에 있을 잔치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들은 전날 밤에 큼직한 구이용 돼지고기를 오븐에 넣어 두었습니다. 양배추롤빵, 도넛, 샌드위치용 자두 식빵, 그리고 특별 생주스는 일찌감치 준비되었습니다. 메뉴는 사우어크라우트와 오이 피클, 그리고 야채들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마가렛과 벨리는 신선한 채소를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어머니는 마가렛과 벨리에게 감자와 당근과 비트를 왜 그렇게 많이 다듬는지 계속 물었지만, 그들은 그저 일만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한 떼의 말이 이끄는 썰매에 열세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좁은 길을 내려오는 것을 맨 처음으로 발견한 것은 마가렛의 아버지였습니다. 말 애호가인 그는 먼 거리에서도 한 떼의 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코직키 가족이 왜 오는 거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코직키 가족이 도착하자 마가렛의 아버지는 코직키 씨가 딸들을 마구간에 넣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코직키 부인은 마가렛의 어머니를 껴안고 성탄절 만찬에 초대해 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모두 집안으로 들어가서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식사를 하면 접시와 나이프며 포크 따위를 씻어서 아이들이 교대로 식사를 했습니다. 훌륭한 파티였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식사를 끝낸 후에는 함께 성탄절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런 후에 어른들은 다시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애를 행함

마가렛과 벨리는 아이들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두 자매는 침대 밑에 있던 상자 몇 개를 끌어당겼습니다. 상자들 안에는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의 친구들이 준 헌 옷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함께 즉석 패션쇼를 하며 갖고 싶은 옷과 양말, 신발을 고르느라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 소동이 너무 소란스러웠던지 마가렛의 아버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직접 확인하러 침실로 왔습니다. 그는 “새” 헌옷들로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코직키 아이들을 보며 웃음 띤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하렴.”

오후가 되자, 너무 춥고 어두워지기 전에 마가렛 가족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신은 채 떠나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가렛과 벨리는 자신들이 코직키 가족을 초대했다는 것을 이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가렛 키실레비흐 라이트는 1998년에 77번째 성탄절을 맞아 처음으로 그 비밀을 가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이 자신에게 최고의 성탄절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성탄절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샌들을 신은 발걸음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목수의 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발자국을 따르는 걸음마다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진리를 얻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⁷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같이 하고자 결심합니까?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에게

바치는 찬사가 한 줄의 성구에 담겨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⁸

이번 성탄 절기에,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모든 성탄절에 주님의 발자국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성탄절은 최고의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

주

1. 앨 스티븐과 로버트 앨런, “Home for the Holidays”.
2. Elizabeth Bowen, “Home for Christmas”, Mary Engelbreit, *Believe: A Christmas Treasury* (99원), 27쪽.
3. 데이비드 오 맥케이, *Gospel Ideals* (195원), 551쪽.
4. 이사야 7:14; 또한 마태복음 1:18~25 참조.
5. 모사이야서 3:5, 7~8.
6. 마태복음 2:2, 10~11.
7. 누가복음 2:52.
8. 사도행전 10:38.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메시지를 나눈다. 다음에 제시하는 몇 가지 예를 따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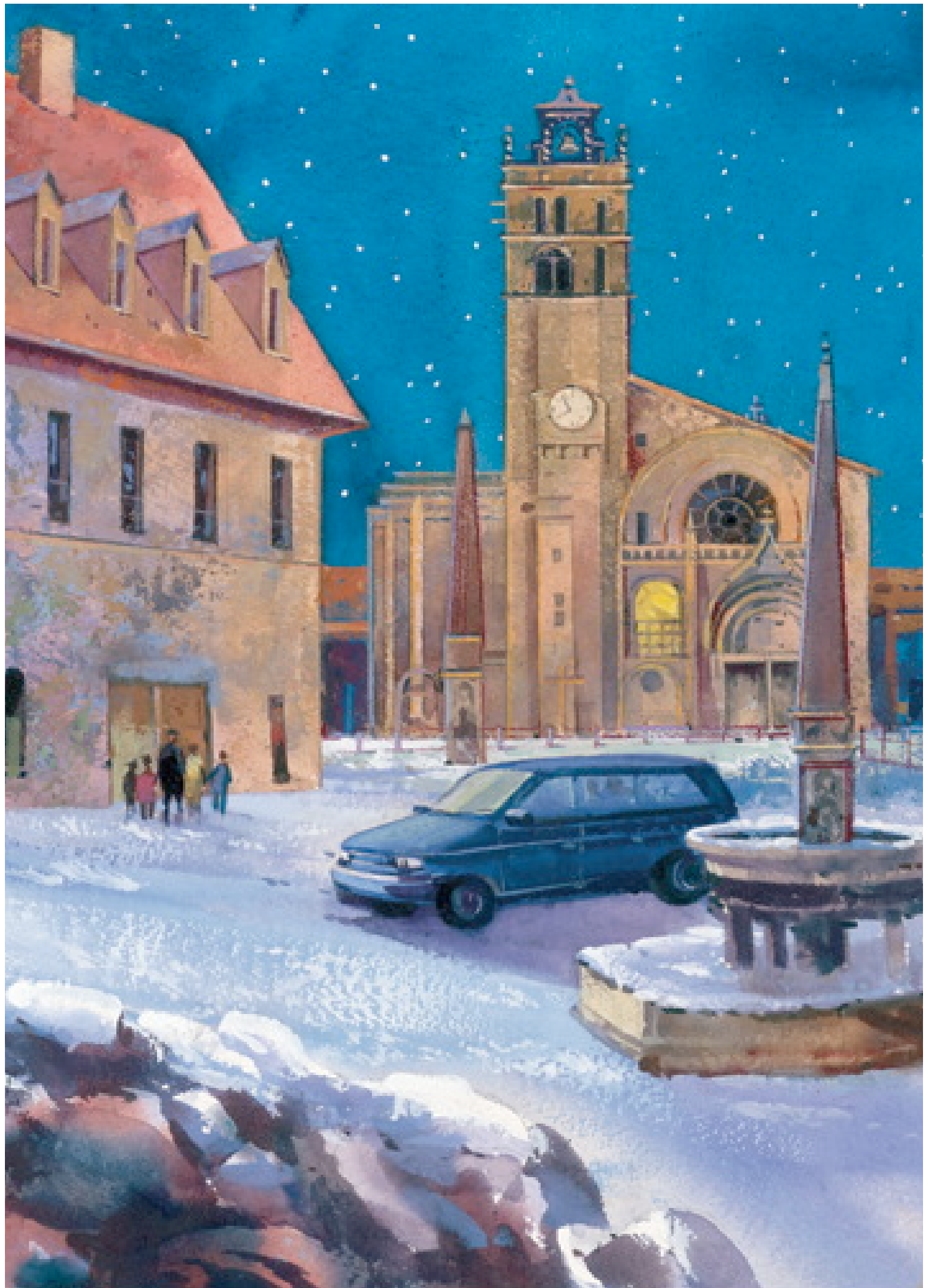
1. 가족 한 명에게 맥케이 회장의 인용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 달라고 한다. 최고의 성탄절을 보내려면 구주의 발자국을 따라야 한다. 가족들에게 각자 자신의 발바닥을 종이에 대고 그리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문을 마치고 떠난 후에 시간을 내어 각 발자국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 보라고 한다. 봉사하는 일이 어떻게 우리를 구주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주는지 표현하기 위해 가족들이 그린 발자국들을 구주의 사진을 향해 [걷는 모양으로] 배치해 보라고 제안한다.

2. 가족 구성원들에게 잊지 못할 몇 가지 성탄절 경험을 나누게 한다. 그러한 경험들이 훌륭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코직키 가족의 경험을 읽거나 이야기해 준다. 다른 사람들이 성탄 절기를 즐겁게 보내도록 이번 달 동안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지 방법들을 찾아보게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16 참조)



여관방

닐 엘 앤더슨 장로
철십인 회장단

어느 화창하고 상쾌한 겨울날 오후,
우리는 승합차를 타고 프랑스 보르도에
있는 선교부 사택으로 향했습니다.
때는 1990년 12월 24일이었고, 우리는
성탄절을 위해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내 캐시와 저는 우리의 네 아이들과 함께
기억할 만한 일주일을 막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캐시는 14세, 브랜트는 13세, 크리스틴은 10세,
그리고 데릭은 8세였습니다. 우리 선교부가
관할하는 지역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하는 일에 선교사들을 모두 모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과 함께 선교부 내에
있는 모든 도시를 여행하며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함을 전해 주고, 자녀들이 특별한 성탄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년
중에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 시기에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나누는 위대한 특권을 선교부의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네 명의 훌륭한 선교사들과
함께했습니다. 커다란 푸른색 승합차는 이제 짝
차고 성탄절의 영도 충만했습니다. 성탄절 축가를

부르고, 좋아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여행
시간은 금세 지나가버렸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받을 선물들을 기대하는 크리스틴과 데릭의
기분은 매 시간 고조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부부 선교사가 우리를 기다리며 선교부 사택에
준비해 놓은 칠면조 요리 냄새가 벌써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성탄절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오후 늦게야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전, 상당 시간
동안 승합차의 기어를 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멈추고 변속기 윤회유
높이를 점검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했습니다. 이제, 이미 밖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보르도까지는 두 시간을 더 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3단, 4단, 5단 기어가 한꺼번에 작동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2단 기어를 유지한 채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선 시골길을 느릿느릿 달렸습니다. 그 상태로
보르도까지 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우리는 막 문을 닫을 채비를 하던 편의점에 첫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는 차를 임대할 수 있는 곳이나 가까운 기차역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라고 불릴 수 있는 곳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도움이 될 만한 답도 별로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승합차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얼굴에 걱정과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 전야를 집에서 맞이하지 못하게 될까? 아이들이 일년 중 가장 특별한 이 밤을 비좁은 선교부 승합차에서 보내야만 할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선교사들에게 기쁨과 격려를 전했던 우리 아이들은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프랑스의 시골길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던 크리스틴은 곧바로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선교사들, 구도자들, 교회 회원들, 우리의 지도자들, 프랑스 국민들, 우리 가족을 위해 수없이 가족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윽고 밝은 캄캄해졌습니다. 승합차는 조깅할 때의 속도로 천천히 소나무 숲 사이를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5킬로미터 전방에 있는 작은 마을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빌누브 드 마르상이란 작은 마을을 가리키는 조그마한 표지판이 자동차 불빛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이 지역에서 보르도까지 2차선 도로를 타고 여러 차례 오갔었지만 이렇게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빌누브 드 마르상이라는 작은 마을로 들어가 본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듬거리며 그 마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을 정경은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집들과 작은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마을로 이어진 좁은 길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찌감치 상점 문을 닫았으며 거리는 어둡고 황량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가톨릭 교회에서 비치는 전통적인 자정 모임을 준비하는 불빛은 이 마을에 적어도 사람이 살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지나갔고, 얼마 가지 못해서 승합차는 머뭇거리더니 곧 멈추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자동차가 멈춘 곳은 아주 예쁜 시골 여관 앞이었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으므로 우리는 이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여관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저는 캐시와 캐미,

그리고 선교사들을 승합차에 남겨 두고 어린 아이 세 명만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있는 젊은 여성에게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괴로운 표정을 짓는 저의 아이들을 본 그녀는 여관 주인인 프랜시스 다로즈 씨를 부르는 동안 기다려 달라고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캐미가 우리의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다로즈 씨가 오기를 기다리며 저는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밤에 보르도로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참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깨끗한 여관으로 이끌어주시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자칫하면 프랑스 외딴 지역의 승합차 안에서 밤을 보낼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자 오싹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 시야에는 계산대 옆에 있는 식당이 보였는데 성탄절 전야에도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식사를 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한 뒤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로즈 씨는 프랑스 전통 주방장 복장을 하고 왔습니다. 두 겹의 주방장 상의에 단추가 턱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여관의 주인이었고 그 지역의 주요 인사였습니다. 따뜻한 시선과 활기찬 미소는 또한 그가 신사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의 곤란한 사정과 우리 일행 열 명이 승합차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보르도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저의 억양을 알아채자, 저는 우리가 미국인이라는 것을 덧붙였고, 왜 우리가 프랑스에 있는지를 한 문장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그는 즉시 우리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약 1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기차가 다니는 조그마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 보르도로 가는 열차 편을 문의했지만 다음 열차는 성탄절 오전 10시 15분에야 출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도시의 렌터카 회사들은 그날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얼굴에는 이내 실망감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다로즈 씨에게 우리 가족과 네 선교사들이 그날 밤을 묵을 방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것처럼 관찮은 숙박 시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다로즈 씨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안 지 불과 몇 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모든 대양을 건너





다 로즈 씨는 재빨리 고개를 저으며

손가락으로 안받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성탄절의
영이 그의 영혼을
채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형제애로 움직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성탄절의 영이 그의 영혼을 채웠습니다. “앤더슨 씨.”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묵을 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 전야를 이 여관에서 보내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성탄절 아침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집에 있어야 해요. 제 차를 빌려드릴 테니 오늘 밤에 보르도로 돌아가시지요.”

저는 사려 깊은 그의 마음에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은 사람, 특히 우리와 같은 외국인들을 경계하며 바라볼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고맙지만 작은 프랑스 차로는 우리 10명이 다 탈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간 그는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저함은 선물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약 16킬로미터 떨어진 제 농장에 오래된 승합차가 하나 있습니다. 농장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앞에만 좌석이 두 개 있습니다. 그 밴은 겨우 시속 70킬로미터로 달리는데, 히터가 잘 작동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승합차를 가지러 가도록 농장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저는 현찰이나 신용 카드를 꺼내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저으며 손가락으로 안 받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는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성탄절 이후에 시간이 나시거든 승합차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성탄절 전야이니 가족을 데리고 집으로 가십시오.”

자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보르도에서 비추는 불빛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과 선교사들은 그 여관 주인이 빌려준 승합차의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낮은 도로를 달리며 캐시와 저는 친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탄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빌누브 드 마르상의 여관에는 방이 있었지만, 우리는 성탄절 전야를 집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

“여관방”은 원래 *Christmas Treasures(Deseret Book, 1994년)*에 게재되었습니다.



성탄절 기적

라이언 캠벨

러시아 모스크바 선교부에서 겨울은 연중 가장 추운 시기이다. 선교사들에게는 때때로 날씨뿐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겨울이 되면] 사람들은 더 내향적으로 된다. 겨울에 그들은 퇴근한 뒤 모두들 곧장 집으로 달려가는 듯하다. 사람들은 아프고, 길은 너무나 미끄러우며, 추위는 외부에 노출된 살갓을 가차 없이 에인다. 웃음 띤 얼굴은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2007년 겨울, 동반자와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앙, 희망,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여 그들을 북돋아 주고 싶었지만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았다. 사실, 내 기분도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실망스런 느낌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날마다 우리는 가르칠 사람들을 찾아 발이 뺏속까지 얼 정도로 추운 거리를 돌아다녔다. 실망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기에 우리는 사람들이 성탄절의 영을 느끼도록 도와 주고 싶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에 몸을 싣고 있을 때 우리 칸에는 몇 명의 음악가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훌륭하게 연주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연주는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아마 한두 사람이 그들에게 주머니 속 동전 몇 닢을 주었을 뿐, 나머지는 그냥 성애가 낀 창문 밖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 연주자들이 안 돼 보였던 나는 동전 몇 닢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윽고 우리 아파트 근처에 있는 역에 도착했고, 우리는 추운 나머지 집으로 달려갔다. 내가 아파트 현관 문을 닫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선교부] 구역 지도자의 목소리였다. 그날 우리는 선교사들이 성탄 절기를 어떻게

기념할지 아이디어를 미리 생각해서 함께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급히 아이디어를 짜내다가 나는 그 음악가들이 생각났고, 우리 구역 선교사들이 기차에서 성탄 찬송을 부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내가 바이올린을 꺼냈다고 했다. 놀랍게도, 아니 당황스러울 정도로 구역 지도자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했다. 우리는 날짜를 정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우리 구역에 있는 세 명의 선교사가 음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계획한] 그날이 왔다. 선교사들은 승강장에서 만났다. 해는 이미 떨어진 지 오래였고 날씨는 끔찍하게 추웠다. 내 발은 거의 감각이 없었다. 우리는 기차가 승강장으로 천천히 들어올 때까지 약 5분간 리허설을 했다. 쌀쌀한 바람과 눈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열린 문으로 기쁘게 들어갔다. 나는 바이올린을 꺼냈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도록 조용히 기도했다.

우리가 기차에 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손가락이 아직 추위에서 풀리지 않은 채로 연주를 시작했더니 바이올린은 매우 단조롭지만 귀청을 찢을 듯한 소리를 냈다. 기차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마치 공기 중에 무언가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다른 선교사들은 내 연주에 맞추어 “고요한 밤”을 불렀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앞에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¹

내가 연주를 하고 다른 선교사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찬송가를 마쳤을 때, 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둘러 보았다. 모두가 우리를 주의 깊게 쳐다 보고 있었다. 몇몇 여성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무도 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듯 잠깐 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뒤쪽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소리쳤다. “그들은 성도예요. 진실한 성도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우리가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주려고 했다. 우리가 돈을 받지 않자, 그들은 더욱 놀랐다. 나는 누군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심지어 한 남자는 우리에게 천 루블이나 되는 돈을 주려 했는데, 우리가 그 돈을 거절하자 그는 무척 놀라워했다. 대신 우리는 그에게 전도용 카드를 주었고 그는 그것을 기쁘게 받았다. 이윽고 다른 승객들도 전도용 카드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교회와 우리에게 대해 묻기도 했다. 우리가 보는 곳마다 웃음 띤 얼굴, 따뜻한 인사가 건네졌다. 그 칸 끝에서 우리는 승객들에게 성탄 축복을 기원했으며 우리의 새로운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문 반대 편에서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하고 우리는 물었다. 기운이 두 배로 충만해진 우리는 다음 칸으로 들어갔다. 처음에 승객들은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찬송가 연주를 마치자 똑같이 기적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은 저녁 시간 내내 우리는 기차 칸을 돌아다녔고, 각 칸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 전에는 그러한 지지와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우리가 음악과 구주에 관한 메시지, 그리고 성탄절의 영이 이루어 낸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의 가장 냉혹한 시기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위안을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영의 영향을 받을 때 얼마나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게 된 것은 내게 큰 축복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을 늘 기억할 것이며 내 마음 속 보배로 간직할 것이다. 영이 그러한 기적을 영원히 만들어 줄 것을 기원한다! ■

주

1. “고요한 밤”, 찬송가, 134장.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예언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기억하며 성탄절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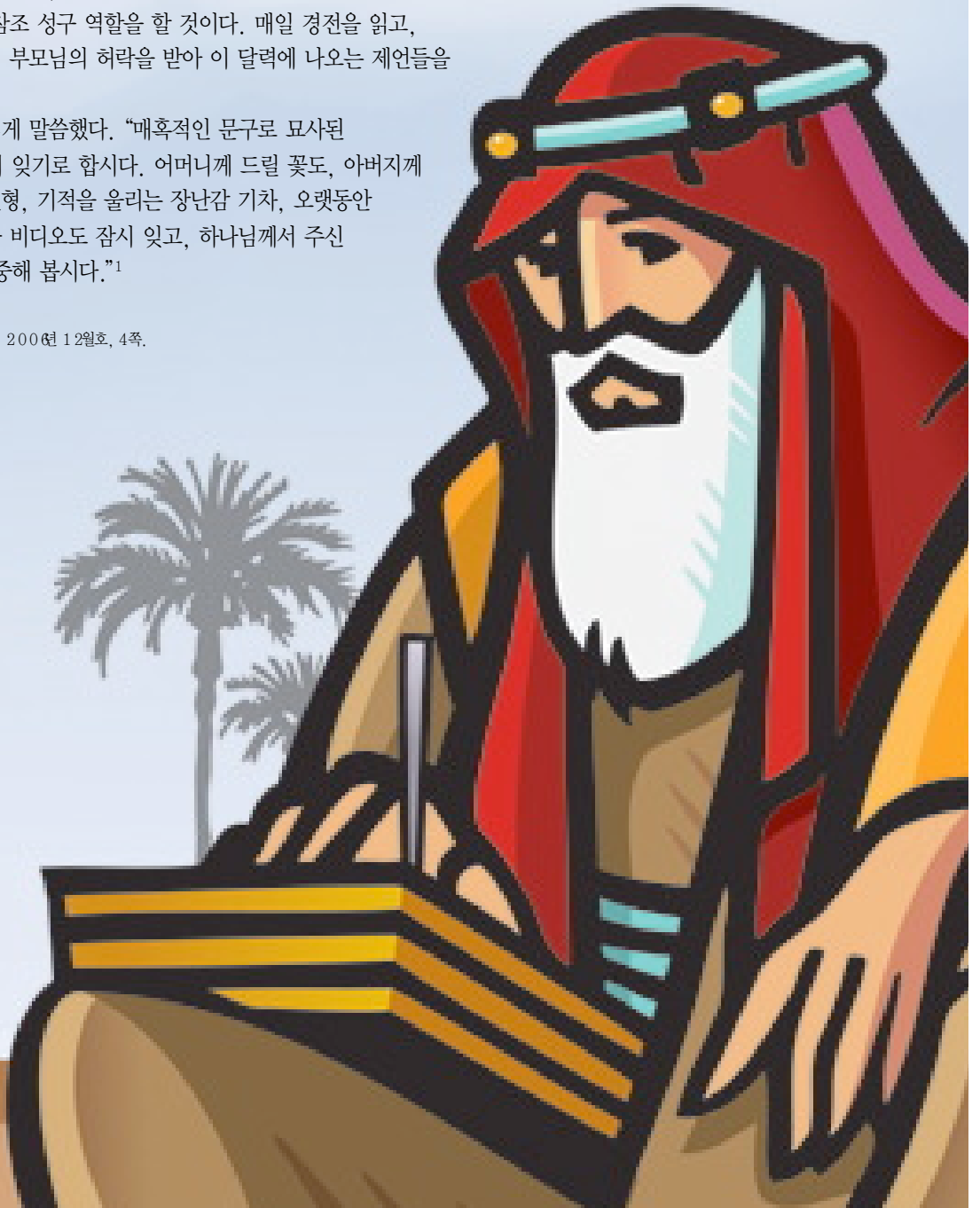
성경과 묵문경의 많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역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예언했었다. 성탄절 12일 전부터 이 강림 달력은 구주의 탄생과 생애,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들에 관한 참조 성구 역할을 할 것이다. 매일 경전을 읽고, 원한다면, 해당되는 활동을 한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이 달력에 나오는 제언들을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매혹적인 문구로 묘사된 크리스마스 선물 카탈로그는 잠시 잊기로 합시다. 어머니께 드릴 꽃도, 아버지께 드릴 특별한 넥타이도, 귀여운 인형, 기적을 울리는 장난감 기차,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자전거, 그리고 책과 비디오도 잠시 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선물에 집중해 봅시다.”¹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소중한 선물”, *리야호나*, 2006년 12월호, 4쪽.

성탄 절기가 다가올 때 여러분이
배운 것을 생각과 마음에 간직하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일년 내내
성탄절을 기념한다.



12월 13일

구약의 선지자인 이사야는 동정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성구는 그분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또한 니파이후서 17:14 참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또한 니파이후서 19:6 참조)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구나 가족, 또는 와드나 지부 회원 중 한 명을 정한다. 그 사람에게 과자, 경전 말씀, 또는 성탄 카드 같은 작은 선물을 몰래 전한다.

12월 14일

니파이는 시현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았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보는 처녀는 육의 방식에 의하면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시니라 하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그 처녀가 영에 이끌려 감을 보았으며, 얼마 동안 그 처녀가 영에 이끌려 가 있는 후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보고 그 처녀를 다시 보았더니 한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참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니파이전서 11:18~21)

성탄절에 받고 싶은 것 대신, 주고 싶은 것 목록을 만든다.

12월 15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취하실 사명에 관해 간증했다. 다음은 기원전 150년경에 살았던 선지자 아빈아다이가 한 말이다.

“또 이와 같이 육신이 영에게, 곧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여 한 하나님이 되사, 유희를 받으시나 유희에 굴하지 아니하시며, 조롱 받음과 채찍질 당함과 쫓겨남과 자기 백성에게 버림 당함을 참으시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일 후에,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능하신 기적을 많이 행하신 후에 ...”

“참으로 이와 같이 그가 끌려 가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리니, 육체는 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리로다.”(모사이아서 15:5~7)

성탄절 과자를 만들어 여러분의 와드 또는 지부의 한 가족에게 준다. 주는 것은 와드의 단합과 우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2월 16일

기원전 83년경, 엘마는 기드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언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 위에 오심이니라. ...”

“또 보라, 그는 ...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니, 그는 처녀로서, 귀하고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 성신의 권능으로 덮으심을 입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엘마서 7:9~12)

궁핍한 사람에게 봉사의 선물을 준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봉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가족들에게 부탁한다.

12월 17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각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단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신다. 에스겔은 주님께서 목자가 되실 것이며 잃어버린 양을 모으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 먹이되”(에스겔 34:11~13)

동생이나 나이 어린 친척, 또는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 그에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성탄 이야기를 읽어 준다.

12월 18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셨지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침례를 받으셔야 했다. 다음은 리하이의 예언을 니파이가 기록한 것이다.

“또 나의 부친은 이르기를, 그가 요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침례를 주리라 하셨으며, 또한 이르기를, 그는 물로 침례를 줄 것이며, 참으로 그가 메시아에게 물로 침례를 줄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또 그는 메시아에게 물로 침례를 준 후에, 그가 세상의 죄를 제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침례를 주었음을 알고 증거하리라 하셨느니라.”(니파이전서 10:9~10)

와드나 이웃에서 아프거나 연로한 분, 홀로된 분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시간이라는 선물을 준다.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한다.



12월 19일

레이만인 사무엘은 구주의 탄생을 둘러싼 표적에 대해 예언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주노니, 곧 오 년이 지나고 나서, 보라,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자를 구속하시려 오시느니라.”

“... 하늘에 큰 빛이 있어, 그가 오시기 전날 밤은 어둠이 없으므로 사람에게는 마치 낮인 것 같을 것임이라.”

“또 보라, 새 별이 하나 돋으리니, 너희가 결코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것일지라, 이것이 또한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로다.”(힐라맨서 14:2~3, 5)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러분 가족에게는 어떤 성탄절 전통이 있는지 일지에 기록한다.

12월 20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방문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누가복음 1:26~28, 30~31)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 이웃을 돌며 캐롤을 부르거나, 여러분의 집에서 성탄 캐롤을 부른다.

12월 21일

힐라맨의 손자 니파이는 주님의 강림을 충실하게 기다렸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니파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때는 지났고 사무엘의 말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이 일에 관한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신앙은 헛되었느니라.”(제3니파이 1:6)

그러자 니파이는 “나가서 땅에 엎드려, 자기 백성 ... 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1절)

주님은 니파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밤에 표적이 주어질 것이요, 내일은 내가 세상에 와서 내가 나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하게 한 모든 것을 이룰 것임을 세상에 보일 것임이니라.”(13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12월 22일

마침내,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에게 임한 말씀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 ...”

“또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많이 땅에 쓰러져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으니, 이는 주어졌던 표적이 이미 이르렀음이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날 밤이 새도록 어둠이 없었고, 오히려 마치 한낮인 것같이 밝았더라”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말씀대로 새 별이 나타났더라.”(제3니파이 1:15~16, 19, 2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부모님께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훌륭한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편지를 써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12월 23일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 밤, 한 천사가 베들레헴의 의로운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했다.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눕혔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7~11)

더욱 행복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한다.

12월 24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과 선행을 통해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이렇게 증거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 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교성 76:22~24)

금식 간증 모임과 같이 적당한 기회에 구주에 대한 간증을 나눈다. ■



너의 행함을 성별하시리로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1926-2004)
십이사도 정원회

닐 에이 맥스웰은 1981년 10월 3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되기 전에 십이사도 보조로 2년간 봉사했고,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에서 5년간 봉사했다. 8년 동안 백혈병으로 투병한 끝에 그는 2004년 7월 21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운명했다. 맥스웰 장로가 2002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헌납에 관한 이 설교는 시대를 초월하는 말씀이었다.

헌납을 깊이 생각하고 추구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음과 같이 위로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희에게 족함ियो.”

신 양의 권속 안에서 불안전하지만 여전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그렇지만, 저의 첫 번째 청중은 제 자신입니다.

우리는 헌납을 단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소유한 물질을 바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납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은 이따금씩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해야 하는 첫째 계명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핵심어입니다. (마태복음 22:37 참조) 그 계명을 지키면 그에 따라 우리의 행함이 우리 영육의 지속적인 복리를 위해 완전하게 헌납될 것입니다. (니파이후서 3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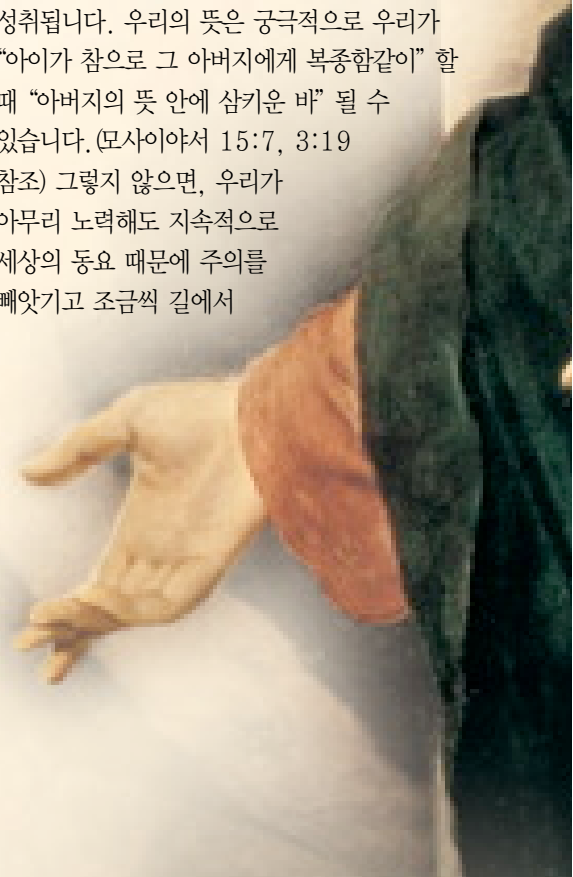
그 계명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은 느낌과 생각과 말과 행위가 서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하나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 (모사이야서 5:13)

많은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거창한 것 같다는 이유로 헌납을 경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자신의 발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전이 지연될 때 가슴속에 신성한 슬픔 또는 불만족의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러한 방향에 대한 확신,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격려, 위안, 그리고 애정 어린 권고를 받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영적인 순종은 한 순간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향상하면서,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단어야 하는 연속적인 디딤돌을 활용할 때 성취됩니다. 우리의 뜻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할 때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될 수 있습니다. (모사이야서 15:7, 3:19 참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속적으로 세상의 동요 때문에 주의를 빼앗기고 조금씩 길에서





구 주는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던]” 속죄의 고뇌와 고통을 겪으시며, 놀라운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금전적인 헌납의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았을 때, 그들은 “그 값에서 얼마,” 즉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사도행전 5:1~11 참조) 그와 같이 우리는 대부분 한 특정한 “일부”에 집요하게 집착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집착도 마치 하나의 소유물인양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미 다른 모든 것들은 주었는지라도, 그 마지막 남은 일부만큼은 하나님께 바치기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베푸는 것도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은 분명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라면 제
사무실에서
몰아서

냈어요”라는 변명과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야고보서 1:7~8 참조)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이 소유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특정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러한 것들에 더욱 집착한다면, 첫째 계명의 헌납 앞에서 주춤거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 나날이”(모사이야서 2:21)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앞에서 흥분하여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시간과 돈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봉사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내적 자아의 일부를 보류할 때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그분의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일이나 임무가 그들의 황혼기에 주어질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여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요한복음 3:30) 현재 맡은 임무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라고 여기는 그릇된 생각은 그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을 더욱 망설이게 만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개인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미 “위대한” 것으로 확립하셨습니다. 그 가치는 증권 시장에서처럼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디딤돌들이 쓰이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은 의로운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기꺼이 극복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21 참조) 그렇게 하면 남아 있는 이기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회피는 여러 모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달의 왕국은 분명 거짓 증거하지 않는, “존경 받는 자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아니[하였습니다].”(교성 76:75, 79) 그리스도에 대해 용감하게 간증하는 최상의 방법은 지속적으로 더욱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계발하도록 노력하는 헌납입니다. (제3니파이 27:27)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십시오

앞서 이야기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자 할 때 영적으로 겸손한 것은 다행히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종종 세상적인 것과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포기”할 수 있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잡[게]”하고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니파이전서 8:30)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레이먼과 레뮤엘은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여 강력한 바로와 그의 군대의 손아귀에서 탈출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그들은 일개 지방 호족에 불과한 라반을 상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 신앙이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직장이나 부업 장소에서 너무 지나치게윗사람의 마음에 들려다가 정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은 또한 첫째 계명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3)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특이한 성격을, 마치 그것이 개성의 일부인 양 옹호합니다. 어떤 면에서 제자의 길은, 선지자 조셉이 증언했듯이 일종의 “신체 접촉 운동”과 같습니다.

“저는 크고 거친 돌과 같습니다 ... 그리고 저는 오직 모서리들이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가속이 붙은 에너지와 충돌하여 마찰이 일어날 때만 다듬어집니다 ... 그리하여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화살통에 꽃힌 부드럽고 잘 다듬어진 화살대가 될 것입니다.”¹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보다는 그저 무릎으로만 예배하기 때문에 “일부” 지성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돕거나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들을 배웠던 모세처럼 유순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모세서 1:1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자신의 주체성 사이의 미묘한 상호관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헌납하기를 주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이 실제로 승리인 이유는 그것이 발전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더 높은”(이사야 55:9 참조) 길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모순적이지만 지나친 집중은, 심지어 좋은 것에 대해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스포츠나 육체를 경외하는 행태에 지나치게 빠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서 봅니다. 자연을 경외하지만, 자연의 창조자를 무시합니다. 훌륭한 음악이나 가치 있는 직업에 대해 극도의 경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흔히 “더 중한”(마태복음 23:23; 또한 고린도전서 2:16 참조) 문제들이 생략됩니다. 오직 가장 높으신 이만이 여러분과 제가 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선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두 계명에 다른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반대로 다른 모든 것들을 추구할 때 위대한 두 계명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40 참조) 더 낮은 선을 열정적으로 추구한다는 이유로 첫째 계명을 뒷전으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은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십시오

의로운 노력의 수확을 누리기에 앞서, 우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신명기 8:17) 합리화하게 될 것입니다. 또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뽐내며(사사기 7:2) (기드온의 사례 깊은 소규모 군대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손”을 과대하게 선전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일을 배나 힘들게 합니다. (엘마서 14:11, 교성 59:21 참조)

프리바라 하는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인 모세는 물을 찾는 백성들의 아우성 때문에 지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모세는 “경솔하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06:33; 민수기 20:10; 또한 신명기 4:2 참조) 주님은 대명사 문제를 통해서 모세를 가르치신 후 그를 더욱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해지기 위해 잘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3 참조)

예수님은 초점을 잃으신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선행을 베푸셨지만, 언제나 속죄가 기다린다는 것을 아셨으며, 그 사실을 직시한 채 이렇게 간청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요한복음 12:27, 또한 5:30, 6:38 참조)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은 사랑과 인내, 온유함을 발전시킬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인류에게 더 많은 것을 드러야 합니다. 인간의 활동 영역 속에서 그 누구도 우리의 위치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개척하기를 매우 꺼려할지도 모를 새로운 영역으로 디딤돌들이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디딤돌을 거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대체로 우리는 우리가 조용히 탄복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배고픈 탕자는 집에서 먹던 식단을 기억했겠지만, 그는 또한 다른 기억들에 끌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누가복음 15:18)

헌납은 하나님께 그분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표준의 순종을 하려 할 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러야만 하는 것의 전부인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일상적인 선물들은 “반송” 도장이 찍혀 되돌려 보내질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의 선물을 받으시면, 온전히 충실한 사람들에게 그 답례로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교성 84:38)을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교환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그때까지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선택의지, 재능, 기회 등을 주셨으며, 우리가 가진 재산을 주셨고, 정한 생명의 기한과 필요한 호흡을 주셨습니다. (교성 64:32 참조) 그러한 관점에서 인도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때 ‘일부’를 아끼워하는 심각한 오류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 중 어떤 것들은 여덟 명으로 구성된 중창단의 노래를 듣고 태버나클 합창단으로 혼동하는 실수처럼 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헝클리 회장님께서 희생이 “속죄의 본질”임을 들어 성찬식과 십일조, 성전 성약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성약의 백성임을 역설하신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²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의 모범

구주는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던]”(교성 19:18) 속죄의 고뇌와 고통을 겪으시며, 놀라운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순종의 규모는 작고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으레 시험에 직면하면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든 거두어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정작 깻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언덕에서의 초월적인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성역이 여전히 중요하겠습니까? 그분의 다른 기적들은 일부 사람에게 생명이 연장되고 고통이 감소하는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적들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부활이라는 최고의 기적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22 참조) 그 수가 늘어난 떡과 물고기로 굶주린 군중들은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다시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에 반해 생명의 떡을 취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시는 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51, 58)

헌납을 깊이 생각하고 추구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음과 같이 위로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희에게

족함ियो.”(교성 17:8) 참으로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은 또한 약한 것을 강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더서 12:27 참조) 참으로 그 과정을 기꺼이 감수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고 싶다면 그분께 드려야 할 것의 일부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뜻이 더욱 더 하나님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교성 84:38) 받을 수 있는, 확장되고 더욱 유능해진, 증진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우리의 뜻이 더욱 그분의 뜻과 같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의 진가를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엇이든 “일부”를 감춰 둬으로써 우리가 배반하게 되는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마태복음 26:22)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우리를 막고 있는 개인적인 장애물에 대해 생각하며 “주여 이것입니까?”라고 여쭙어 봅시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대답을 알고 있었으며, 그분의 응답보다는 확고한 결심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한 계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기꺼이 자신을 발전시키며 그분이 다스리는 왕국까지 여행하는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종적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여행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³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으시는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성 103:17, 136:22)

부제 첨가: 철자, 스타일, 인용을 표준화 했음.

주

1. 제임스 알 클라크 편집, Messages of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6권 (1965~1973), 1:185.
2.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년), 147쪽.
3. “Come, Let Us Anew”, 영문 찬송가, 21장.

그 수가 늘어난 떡과 물고기로 굶주린 군중들은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다시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에 반해 생명의 떡을 취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시는 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자, 생명이며,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인용문을
가르칩니다. 교리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여러분이 방문한
자매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도록 권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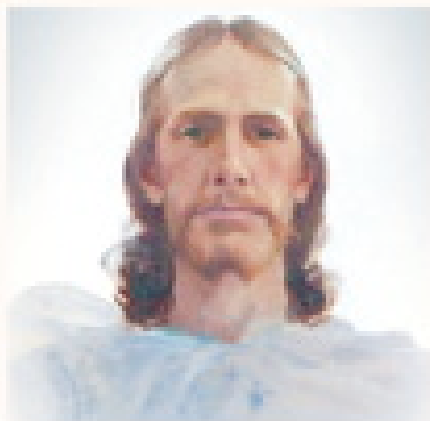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세상의 빛과 생명이 되는가?

니파이전서 17:13: “또한 내가 광야에서
너희의 빛이 되고 ... 그러하즉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약속된
땅을 향하여 인도될 것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이가 나인 줄 알리라
하셨음이라.”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며
생명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 아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즉 빛의 근원이며
모든 것의 생명이 되십니다. ...”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아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는]’ (교리와
성약 88:12) 빛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빛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 (교리와 성약 93:2)
입니다. 그분의 모범과 가르침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 줍니다. ...”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이는 경전에서 ‘사망에서
건지시는 크고도 영원한
계획’ (니파이후서 11:59)이라 불리는
계획에서 그분이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
때문입니다. 그의 부활과 속죄는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 모두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생명과 빛”, *리아호나*,
1997년 12월호, 42~43쪽, *New Era*,
1996년 12월호, 6쪽 참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때때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나 나약함을 느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러한 곤경에서 여러분을 아주 높은
곳으로 들어올려 줄 신성한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상황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분은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처럼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9)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냐?”,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9쪽)

줄리 비 백,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물문은 ‘또 너희가 바야바 할 바는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우리에게 세 가지 위대한 희망에 관해
말해 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으로
일으키심을 받으리라’ (모로나아서 7:41)”

“침례 받았을 때 여러분은 첫 번째
위대한 희망인 그리스도의 속죄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마다 여러분은 다시 시작 ... 할 기회를
얻습니다.”

“두 번째 위대한 희망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속죄와 부활에 대한 희망과 함께
여러분은 세 번째 위대한 희망, 즉
영생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
여러분에게는 구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창조와 봉사, 배움의
행복한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협착하고 좁은 길에 들어섰으며, 여러분
앞에는 밝게 미소 짓는 희망이 있습니다.
...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 나아가면서
계속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밝게 미소 짓는 희망”,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103~105쪽) ■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않으면서 더 의미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 전은 중언부언하는 것, 즉 헛되고 의미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데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7 참조) 때로는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반복해서 말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을 피하려면 “진정한 의도”(니파이후서 31:13, 모로나이서 7:9, 10:4 참조) 즉 진심으로, 그리고 신앙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제3니파이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치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저들에게 기도할 바를 주신 것에” ... 많은 말을 더하지 아니하[고]”(제3니파이 19:24) 기도했습니다. 성신은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할 수 있고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26 참조) 그분은 또한 여러분이 조용한 장소에서 서두르지 않고 기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매일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들과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필요 사항들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용서를 위해서, 시련의 시기에 필요한 도움과 더 강한 간증을 위해서, 그리고 유혹에서 보호받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이기적인 기도

우리가 단지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때때로 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서도 생각하세요. 모든 축복들을 세어보고 그것들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드리세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바람이나 불평을 들으시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분께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재빨리 말한 후 침대로 뛰어든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여쭙어 보세요.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레베카 더블류, 16세, 미국 아이다호 주



성신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감사하는 것들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며, 느낌이나 생각, 또는 영의 속삭임으로 와서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충고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미래에 참조하기 위해 이러한 생각이나 느낌들을 계속 일지에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세보 장로, 21세, 텍사스 주 휴스턴 선교부

대답들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일과를 돌아보십시오

밤에 기도할 때, 저는 경전에서 읽은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무엇을 올바르게 행했고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날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권고를 기억하고 그것을 따를 힘을 얻도록 항상 도와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하더라도 늘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과를 돌아보면, 언제나 간구하고 감사해야 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케티아 에프, 20세, 브라질 팔마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혼자 있을 수 있고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찾으세요. 소리 내어 기도하면, 훨씬 더 개인적이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면 중언부언을 피하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방지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마라 장로, 20세,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선교부

기도한 후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을 신뢰해야 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한 후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며, 여러분 아버지에게 하듯 말하세요. 실제로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분께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것에 대해 말씀드리세요.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분과 함께함을 즐거워하고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한 뒤 응답 받기 위해 가만히 귀 기울이세요.

리올 에이, 20세, 멕시코 멕시코시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몇 분만이라도 앞서 계획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가장 진지한 소망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세요. 가족과 친지, 그 외에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해 보세요. 도움과 인도,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구체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기도는 일반적으로 “좋은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에서 “제가 하는 결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모범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더 그리스도와 같은 기도이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기도를 마음 속에 소중히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한나 티, 14세, 미국 메릴랜드 주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실제로 대화하도록 합시다. 반복적이고 별 생각 없이 읊조리는 말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의 아들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기도로 그분께 다가가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바라십니다.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간구하며 진실함과 의미를 담아 기도를 합시다.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응답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힘과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스 회장, “군도다 그 기초”,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67쪽.

다음 호 질문

“저의 부모님은 회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교회에 관해서 말하기가 겁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2009년 1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11/08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내용과 동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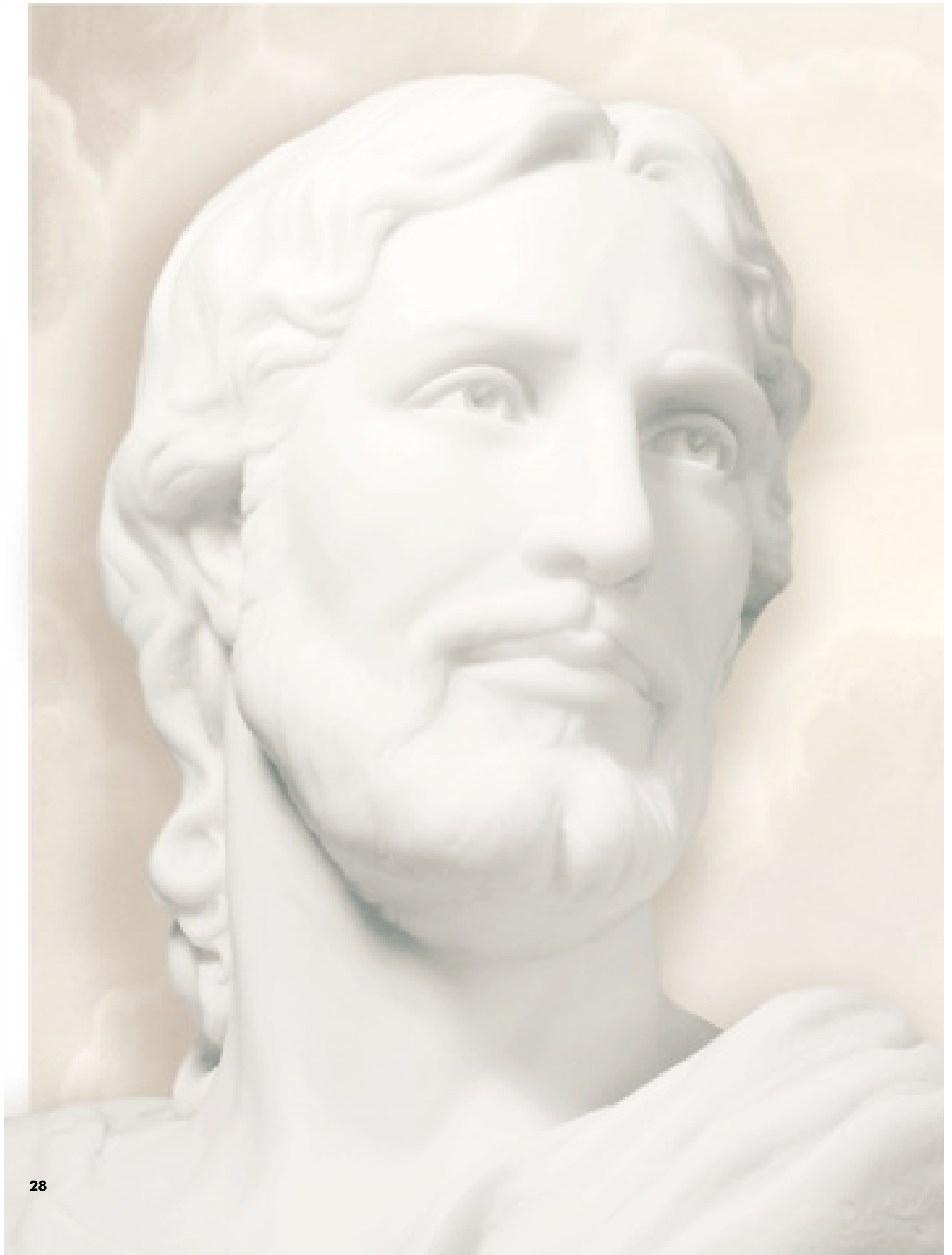
와드(혹은 지부) _____

스태이크(혹은 지방부) _____

나는 답변과 사진의 인쇄를 허가합니다.

서명 _____

부모 서명(18세 미만인 경우) _____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는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¹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놀라게 됩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영원한 인류 가족의 수호자로서 전세에서 그분이 담당하신 역할에 우리는 놀랍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지상에 오신 것과 그분의 강림을 둘러싼 환경에 놀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12세의 나이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침례와 영의 은사로 공식적인 성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에 놀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눈 먼 자를 보게 하시며, 못 듣는 자가 듣도록 하시고, 약한 자를 굳건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가신 모든 곳에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굴복시켰었다는 것을 알 때 놀랍니다. 저는 구주의 성역을 상고할 때마다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며 놀라워할 뿐입니다.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제가 가장 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갈보리 언덕에 오르신 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입니다.

제 인생에서 진실로 제게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의 무게를 지신 것과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가 아니라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묻게 됩니다. 저의 삶과 자비로 가득한 그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제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제게는 더 큰 놀라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비록 제한적인 방법이었지만 저에게도 몇 번의 치유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자신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권의 권한으로 주님의 기적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자비? 용서? 속죄? 화해? 그것은 너무도 자주 별개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분은 그 순간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피가 모든 땀구멍에서 떨어지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놀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하고 흠 없는 분이십니다.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정말 완전했으며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라신다는 또 하나의 놀라운 증거입니다. 그분은 온전함이 우리의 목표라는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시기 전에, 마지막 요구 사항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두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마태복음 5:44)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하기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하고 흠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담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에서 숭배와 존경과 찬양과 사랑을 받을 만한 유일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박해 받았고, 버림 받았으며,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그분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첫째 부모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주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양 떼의 첫 새끼를 주께 제물로 바치라.”(모세서 5:5) 천사는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모세서 5:7)

희생 제물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치러야 할 모욕과 고통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온유와 자비와 관대, 곧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할 용서를 끊임없이 기억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과 그밖에 여러 이유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어린양, 그분의 독생자, 그분의 장자이며 완전하고 흠 없는 분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흠 없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첫 새끼 양들이 해마다, 대대로 돌 제단에 바쳐졌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교리와 성약 59:8 참조)을 의미하는 상징물로 성찬을 취합니다. 성찬을 취하면서 우리는 “항상 그를 기억하고 …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며] …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교리와 성약 20:77) 약속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은 아담의 시대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평화롭고 순종적이며 자비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오래 참음과 친절을 베푸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수 세기가 지나면서 이러한 의식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제물을 바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희생 제물로 바쳤으며,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들여셨습니다. 가인도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여 신앙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독생자의 피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피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이 하나의 예표로 제정되었으므로, 그 예표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희생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표에 어긋나는 희생을 드리면서 신앙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은 그러한 방법으로 오지 않을뿐더러 구속의 권능도 그러한 반차로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이셨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서 바치신 것에 대한 이해와 설명 없이, 또한 그러한 은사를 의미하는 모방적 표현이나 하나의 예표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 그 자체는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²

우리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인과 같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찬을 취한 후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다투거나 거짓말 하거나 속이거나 이웃에게 화를 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은 희생의 의미에 대한 존중 없이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주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아말렉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끌고 왔을 때 사무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어린양, 그분의 독생자, 그분의 장자이며 완전하고 흠 없는 분께 향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흠 없고, 모든 면에서 완전한 첫 새끼 양들이 해마다, 대대로 돌 제단에 바쳐졌습니다.

나오니”(사무엘상 15:15, 22)

사울은 그가 드리는 제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신앙으로 성찬식에 가지만 결국 더 이상의 자비나 인내, 또는 용서를 품지 못하는 후기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의식들이 제정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식에 참여합니다. 의식이 제정된 목적은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서 순종적이고 관대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함

여러 해 전, 멜빈 제이 벨라드(1873~1939)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질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위대한 선물인 그분의 장자의 생명을 우리가 [결코] 무시하거나 잊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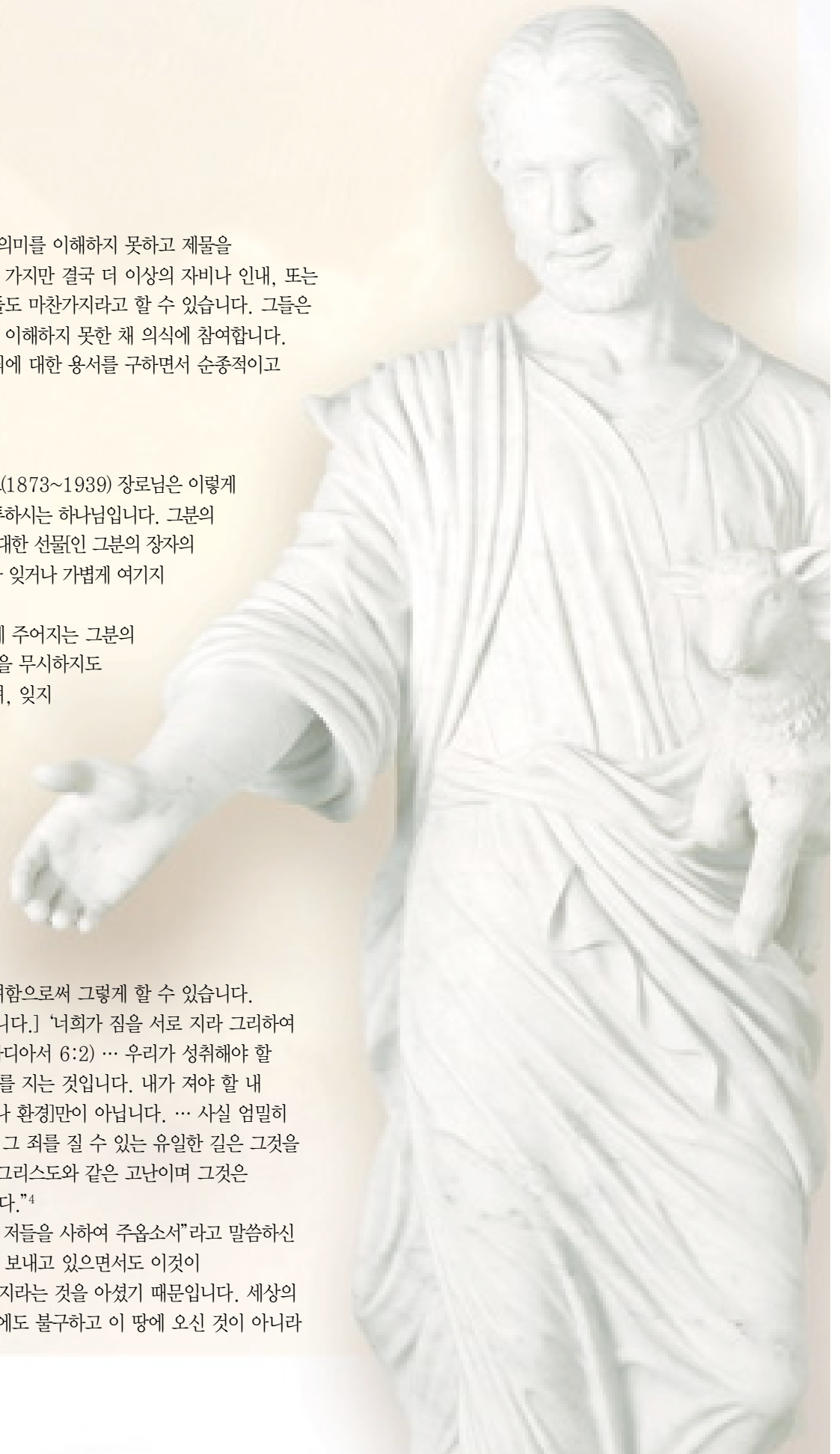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모든 선물 중 가장 위대한 선물을 무시하지도 않고, 사소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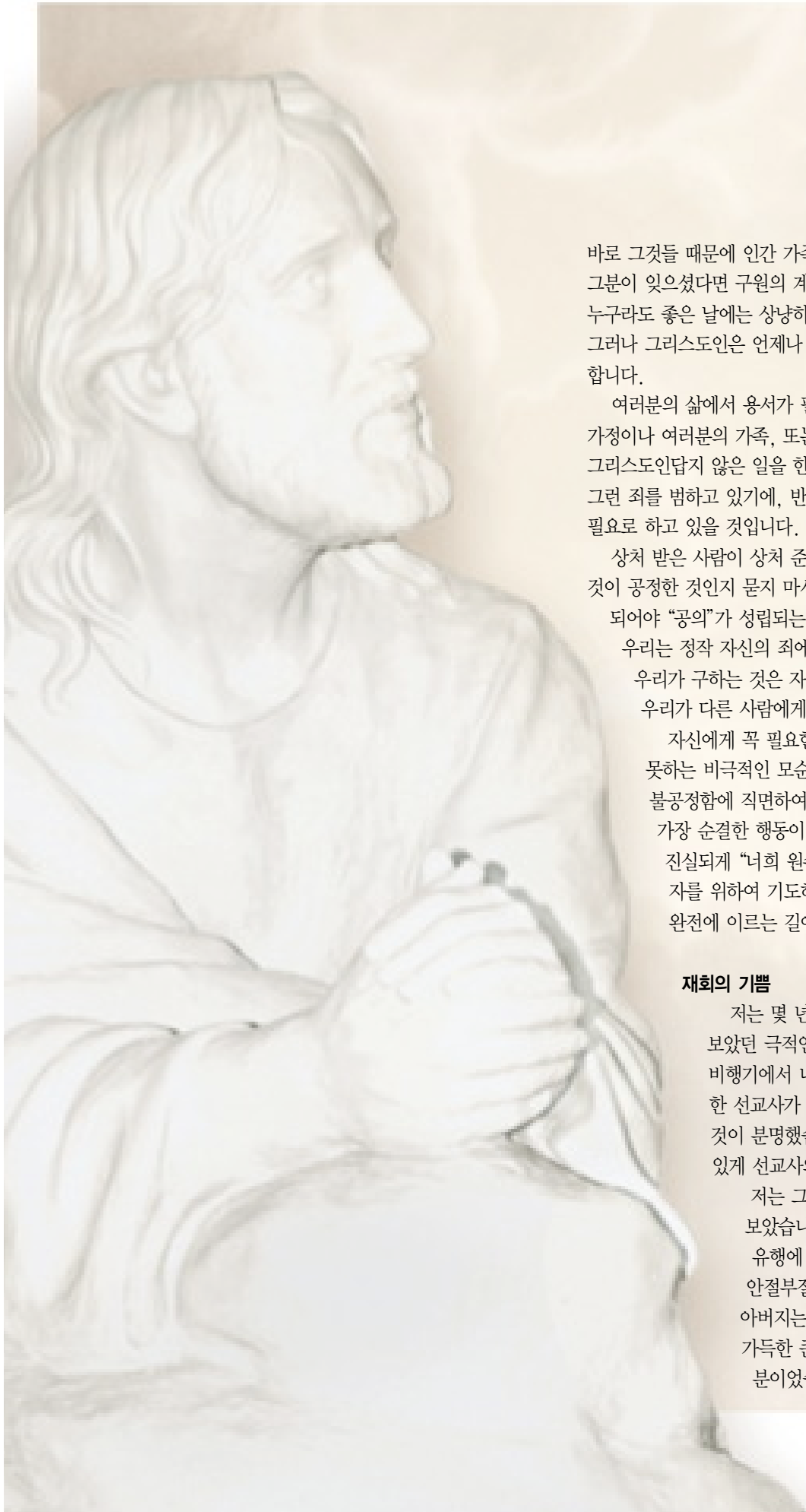
우리 죄를 용서 받고자 하는 소망을 보이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용감한 기도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2) …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의무인 그리스도의 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내 형제의 짐은 그의 외부 상황이나 환경만이 아닙니다. …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의 죄도 져야 합니다. 그 죄를 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 용서란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의무입니다.”⁴

물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굉장히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세세영원토록 전해져야 할 메시지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무자비, 불친절,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 때문에 인간 가족에게 용서를 전하러 오셨다는 것을 그분이 잊으셨다면 구원의 계획 전체가 헛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좋은 날에는 상냥하고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상냥하고 인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족, 또는 이웃 중에 부당하거나 불친절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일을 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죄를 범하고 있기에, 반드시 누군가는 여러분의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짐을 져야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공의”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기꺼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에는 주지 못하는 비극적인 모순이 보이십니까? 불친절함과 불공정함에 직면하여 아마도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한 행동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더 진실되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이르는 길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재회의 기쁨

저는 몇 년 전 솔트레이크 국제 공항에서 보았던 극적인 장면을 기억합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귀환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공항은 한 눈에도 알아볼 수 있게 선교사의 친구들과 친척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들 중에 직계 가족이 누구인지 살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색해 보이고 약간은 유행에 뒤떨어진 차림을 한, 특히 안절부절못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검게 그을리고 노동의 상흔이 가득한 큰 손을 가진 농부처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마르고 왜소한 어머니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셨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손수건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손수건은 처음에는 천으로 된 손수건이었겠지만 지금은 마치 티슈 한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 손수건은 귀환 선교사의 어머니만이 알고 느끼게 되는 걱정과 기대로 인한 눈물을 닦을 때마다 조금씩 닳고 헤어졌을 것입니다.

둘 혹은 세 명의 남동생과 여동생들은 보이는 광경에 크게 개의치 않고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영인과 증에서 누가 제일 먼저 나설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손수건을 보았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나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거기 앉았을 때, 귀환 선교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무리에게서 나오는 흥분에 찬 탄성으로 인해 그가 바로 그 귀환 선교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깨끗하고 잘생기고 반듯하고 키가 큰 모로나이 대장처럼 보였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는 이 선교 사업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도 아니었고, 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커다랗고, 약간은 어색해 보이고, 조용한, 구리 빛의 거대한 남자는 달려가 그의 팔로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선교사는 신장이 대략 188센티미터 정도 되어 보였지만 이 커다란 아버지는 그를 땅에서 들어올려 아주 오랫동안 그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들을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에게 양팔을 둘러 서로를 그렇게 꼭 끌어안았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서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신성한 순간에 대해 경의를 표하듯, 온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봉사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자신의 비용을 들여, 말하자면 그가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주기 위해 가는 아들을 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귀중한 순간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태복음 3:17)하며 애정을 담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선하는 아들이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30)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누가복음 23:46)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 또한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그분의 모든 선물

중 가장 위대한 선물을 무시하지도 않고, 사소하게 여기지도 않으며,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죄를 용서 받고자 하는 소망을 보이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용감한 기도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업적

부족한 저의 상상력으로도 저는 하늘에서 있을 그러한 재회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맞는 재회의 순간도 그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하고, 자비로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재회의 순간을 온전히 향유하고자 한다면 발전시켜야 할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을 갖기를 간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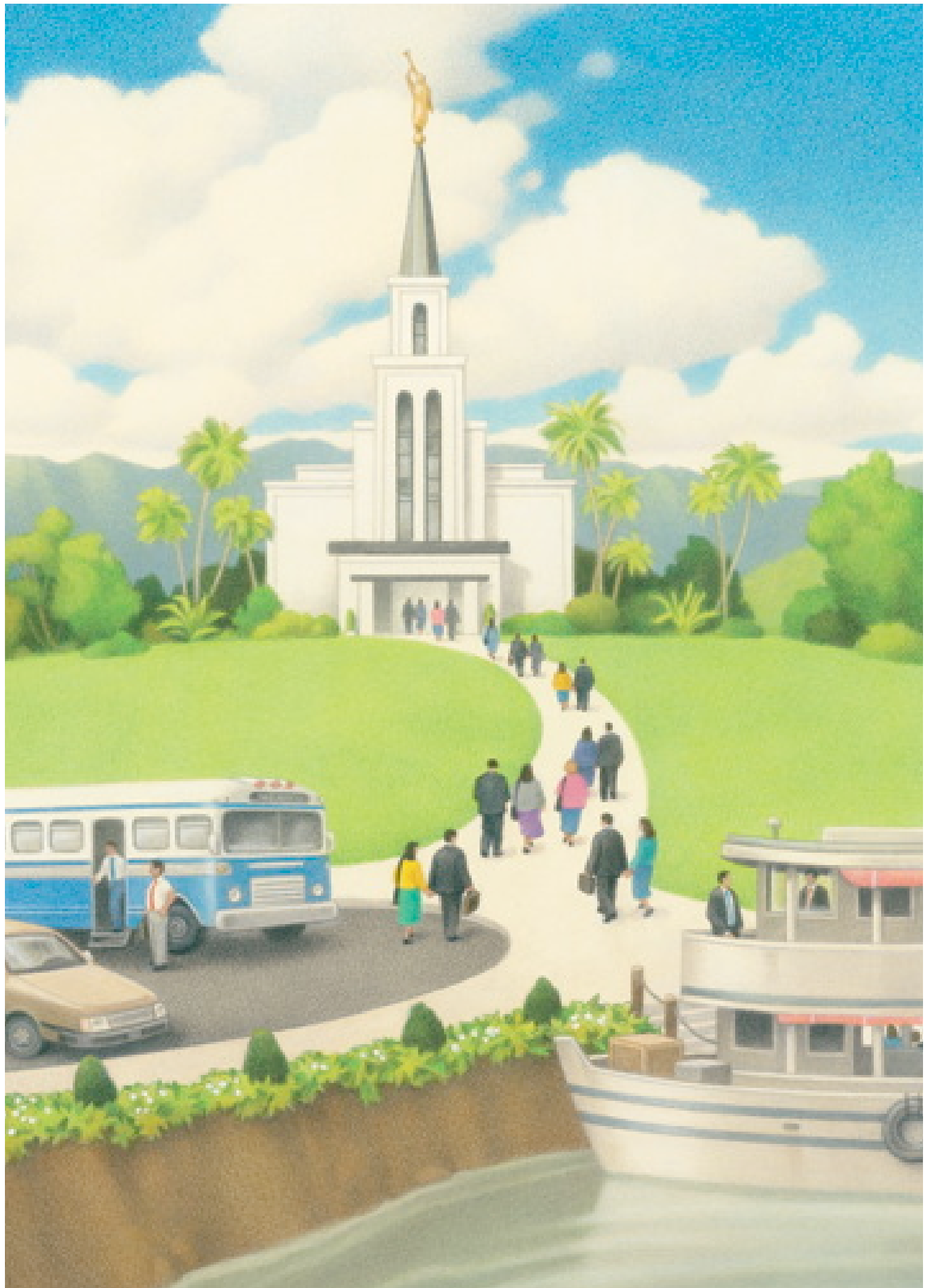
저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기쁜 소식”을 정확히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특권이 허락되는 것을 기꺼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회는 있습니다.

주 거룩한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나와 같이 오만한 영혼을 살리려 ...
죄값 인해 못 박혀 피 흘리셨으니
그 자비 사랑 헌신 내 어찌 잊으리
영화로운 보좌에 무릎 꿇 때까지
경배하고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업적은 훌륭하시라! ■

1987년 11월 24일, 솔트레이크 성전 봉사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발췌

주

1. 예수께서 배푸신 사랑, 찬송가, 11장.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 교제), 48쪽.
3. 멜린 제이 벨라드, 의의 십자군 (1996년), 136~137쪽.
4. Dietrich Bonhoeffer, *The Cost of Discipleship*, 제2판. (1959년), 100쪽.
5. 찬송가, 11장.



성전으로 모임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칠십인 회장단

1922년, 베네딕토 카를로스 도 카르모 멘데스 마틴스가 그의 가족을 가장 가까운 성전으로 데려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브라질 북부의 마나우스에 있는 그의 집에서 성전까지 힘겨운 왕복 여행을 하는 데는 15일의 휴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의 회사가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상사는 그에게 휴가를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여행을 준비하고, 희생하며 돈을 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전에]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곧 응답되었습니다.

“여행 전날, 저는 기생충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틴스 형제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프게 된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의사는 즉시 치료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2주간의 병가를 내어 직장을 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가족들은 성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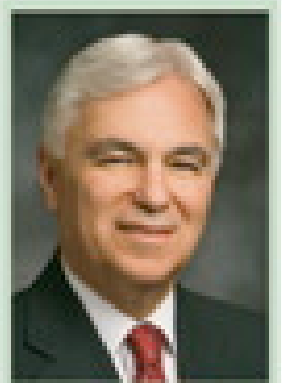
“저는 약을 가지고 갔고 여행하는 동안 주사를

맞았습니다.” 마틴스 형제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기생충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성전 의식, 특별히 제 아내와 세 자녀들과 인봉된 의식에 대한 신앙과 간증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2005년, 마나우스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성전 구역의 일부가 되기 전까지는 그나마 가장 가까운 성전은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이었는데, 그곳은 브라질 남동부에서 수 천 킬로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기로 결심한 마나우스의 몇몇 후기 성도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집과 교통수단, 작업 도구 등 값어치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팔았습니다.

회원들은 상파울루에 가기 위해 네그로 강에서 거의 아마존 강의 합류까지, 그리고 거기서 마테이라 강 동쪽까지 약 115 킬로미터의 거리를 배를 타고 여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테이라 강 남서쪽에 있는 포르토 벨호 시까지 965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했습니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상파울루까지 또다시 2,400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봉사한 후 그들은 돌아오기 위해 다시 7일을 여행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에게 성전에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큰 희생이 요구됩니다. 성도들이 마나우스에서 카라카스에 있는 성전으로의 첫 번째 여행을 준비했을 때, 그들은 참으로 기뻐하여 외쳤습니다. “이제 성전까지 가는 데는 겨우 40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브라질 마나우스에 세워질
성전의 건축 투시도

이제 성도들이 마나우스에서 카라카스에 있는 성전으로의 첫 번째 여행을 준비했을 때, 그들은 참으로 기뻐하며 “이제 성전까지 가는 데 겨우 40시간밖에 안 걸립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성도들이 카라카스까지 가려면 아마존 밀림의 불안정한 지역을 통과하고,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국경에서 큰 버스와 작은 버스를 갈아타는 것을 포함해 1,600 킬로미터를 달리는 버스여행을 견뎌야 합니다. 거리는 짧아졌지만 여전히 상당한 금전적인 희생이 필요했고, 여권 발급 비용까지 추가로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배에 탔을 때, 그들은 “성도들이 성전에 가서”¹를 불렀습니다. 경건을 유지하고 여행의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 그들은 버스에서 노변의 모임을 하고 주님의 산과 같은 교회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여행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적은 일지에서 회원들은 그것을 희생이 아니라 축복으로 기억했습니다. 한 자매는 “오늘 나는 처음으로 성전에 간다. 어제 나는 교회 회원이 된 지 20년이 되는 기념일을 맞았고 아주 많은 시간과 여러 날과 여러 해를 기다리며 준비했다. 나의 마음은 친구들과 신권 지도자,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이 기회에 대한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여행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과 인봉된 한 형제는 성전이 그에게 영원의 일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지키면 더 행복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 함께 해의 왕국에 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브라질 마나우스 선교부는 브라질 북부 6개 주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1990년 7월 1일에 조직되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는 교회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회원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물몬경에 선언하셨듯이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후기에 그의 백성으로 헤아림을 받습니다. (제3니파이 16:13 참조)

오늘날 아마존 주 마나우스 시에는 8개의 스테이크가 있고, 다른 주에도 스테이크들이 조직되어 있으며, 선교부 지역 내에 있는 지방부는 7개에 달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자녀들을 모으시는 주님의 노력에서 성전이 하는 역할에 대해 숙고하며, 저는 물몬경에 있는 그분의 약속을 계속 생각합니다. “참으로 또한 그때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이 시작되어,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의 백성이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 모일 길을 예비하시리라.”

(제3니파이 21:28)

저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마나우스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교회에 가입하여 “성약 안으로 들어 [온]” (제3니파이 21:22) 많은 아마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신권 권능이, 특히 성전 의식을 통하여, 그들의 삶과 가족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5월, 제일 회장단이 브라질의 여섯 번째 성전을 마나우스에 건축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브라질 북부에 있는 교회 회원들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마나우스에 지어지는 성전은 앞으로 증가할 브라질 북부의 후기 성도들과 마틴스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성전에 참여하기 위해 큰 희생을 치를 것입니다.

성전 근처에 사는 우리들이 성전 참여 횟수를 늘림으로써 우리의 감사를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브라질 북부의 성도들처럼 “예수께서 무리에게 자기를 보이실 곳[인]” 성전에 모이기 위해 “열심히 수고[한]” (제3니파이 19:3) 니파이인들의 모범을 따를 수 있기를 빕니다. ■

주

1. 찬송가, 162장.



일부만 회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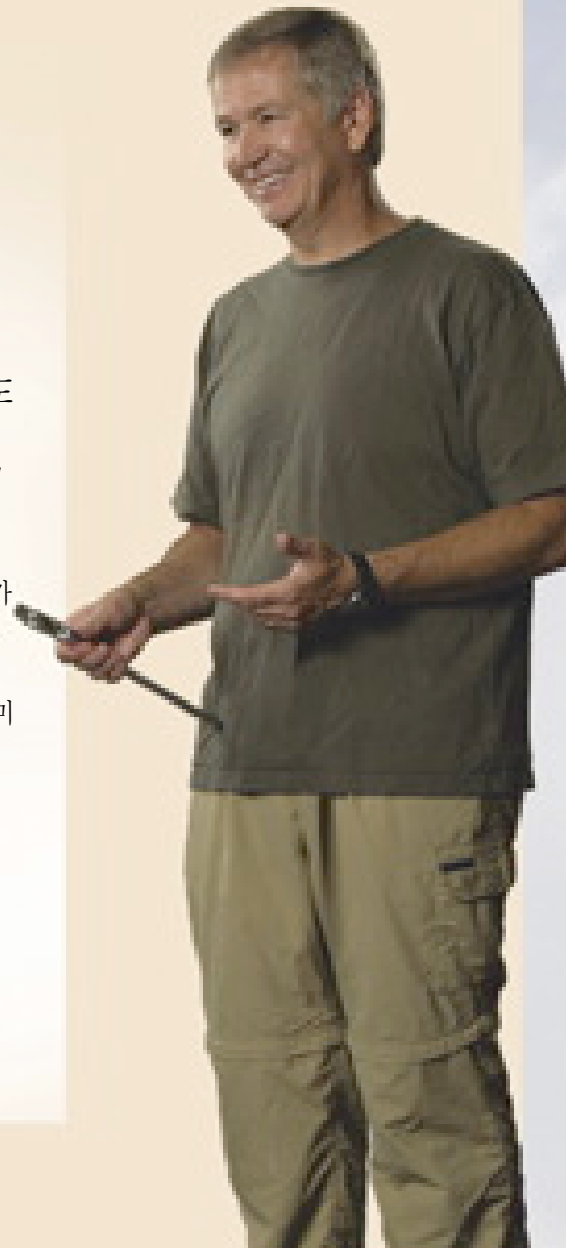
가족의

성전 축복

케이 퍼즈빌

성전 참여는 나에게 후기 성도
회원이 아닌 남편과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통찰력을 주었다.

1986년 6월, 나는 어머니가
앤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앨버타 카드스턴
성전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때 나는 이미
앤다우먼트를 받았었지만 비회원인
남편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외딴
지역에 살고 있었고, 내 성전 추천서는
만료되었었다. 그래서 추천서
확인대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걸어갈 수
있었지만 더 이상은 따라갈 수 없었다.
나는 밖으로 나가 성전 벽에 기대어
울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다시는 성전 밖에 남아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남편은 나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나는 곧 할 수 있는 한 자주 성전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내 삶에, 그리고 나의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 깊은 변화를 가져다 준 원리들을 배웠다.

삶에 다가온 변화들

첫째, 나는 내 인내심의 한계에 변화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화를 참기 위해 노력했지만 별 성과 없이 여러 해가 지나갔었다. 성전 의식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해 배우면서 나의 태도는 변화했다. 가족과 친구들이 내가 지상에 오기 전에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들은 내 삶을 방해하거나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삶의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함께 일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게 발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인내를 배웠다. 나는 또한 인생은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내 행복을 찾는 시간이 아니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행복한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변화는 남편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일어났다. 결혼 전에 나는 그를 가장으로 존중하고 우리 관계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다. 나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었고 때로는 그의 습관들이 내 행복에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었다. 성전에서 나는 우리가 함께 영원한 동반자로 완전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자, 나는 우리가 함께 일했을 때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결점과 장점, 관심과 재능은 서로를 아주 잘 보완해 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는 함께 할 때 더 강해졌다.

남편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면서 나는 덜 비난하고 우리의 결혼 생활에 협동과 협력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좀 더 빨리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구나 남편이 내가 변화하여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느끼자, 나에게 대한 그의 사랑 역시 더 커져 갔다.

발전된 세 번째 부분은 성인이 된 우리 네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게 만들지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느낌이 없어지고, 각자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인정하는 신앙을 찾은 것이었다. 내 자녀들 중 일부는 교회에서 저활동 회원이 되었지만, 나는 그들의 선택의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싶었다. 언젠가 성전을 방문했을 때 나는 기도 명부에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적고 오랫동안 진지하게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나는 그들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깊고 평화로운 확신을 얻었다.

나중에 그 경험을 숙고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분은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제 걱정이 될 때면 나는 그 경험을 기억하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주님께서 나머지 일들을 해주실 것이라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내 삶에 일어난 네 번째 변화는 성전에 참여한 결실로, 일정 부분 더 나은 영원의 관점을 갖게 되면서 내게 전반적인 평안이 온 것이다. 나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자원들이 있도록, 그리고 악의 사막 한 가운데서도 덕으로 인도하는 오아시스가 있도록 주님께서 관리하신다고 확신한다. 나는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신은 나의 동반자이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루 종일 기도로 대화할 수 있다. 전에는 나의 결정들에 대해 몹시 번민하곤 했었지만, 지금은 영의 속삭임을 구하고 결정을 내릴 때 그에 따라 행동한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내 기대에 맞춰 살기를 요구하지 않게 되면서, 나는 “[나의] 구원을 이루[는 데]”(몰몬서 9:27) 더 많은 힘과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관점은 내 어깨의 큰 짐을 털어주었다. 주님의 말씀은 진실이었다.

“나의 명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9-30)



성전에서 나는 남편과

나에게 영원한 동반자로
완전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나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보다 함께할
때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족의 축복

지속적으로 성전 의식에 참석하며 받은 축복들이 개인적인 평안과 확신, 인쇄뿐이라 해도 그것들은 내게 더 없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받은 축복에는 나와 내 가족들에게 축복이 되었던 또 다른 많은 경험들이 있었다.

- 나는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 생과 휘장 너머에 있는 양쪽 가족들에 관하여 많은 훌륭한 것들을 경험했다.
- 1993년 11월, 둘째 딸이 성전에서 결혼했고 나는 그 인봉 의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 2006년 5월, 결혼한 지 37년이 되던 해에 남편이 교회에 가입했다. 2007년 8월에 나는 그와 인봉되었고, 둘째 딸도 우리에게

인봉되었다. 우리의 큰 딸은 2006년 11월에 자신의 남편과 딸에게 인봉되었고, 2008년 8월에 우리에게 인봉되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일곱 살 무렵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끌어주셨으며, 나중에는 내가 성전 추천서를 다시 받도록 영감을 주셨다. 나는 그에 대해 어머니께 영원히 감사드릴 것이다. 그녀의 모범을 따르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고 이러한 축복들은 나의 가족들에게로 확대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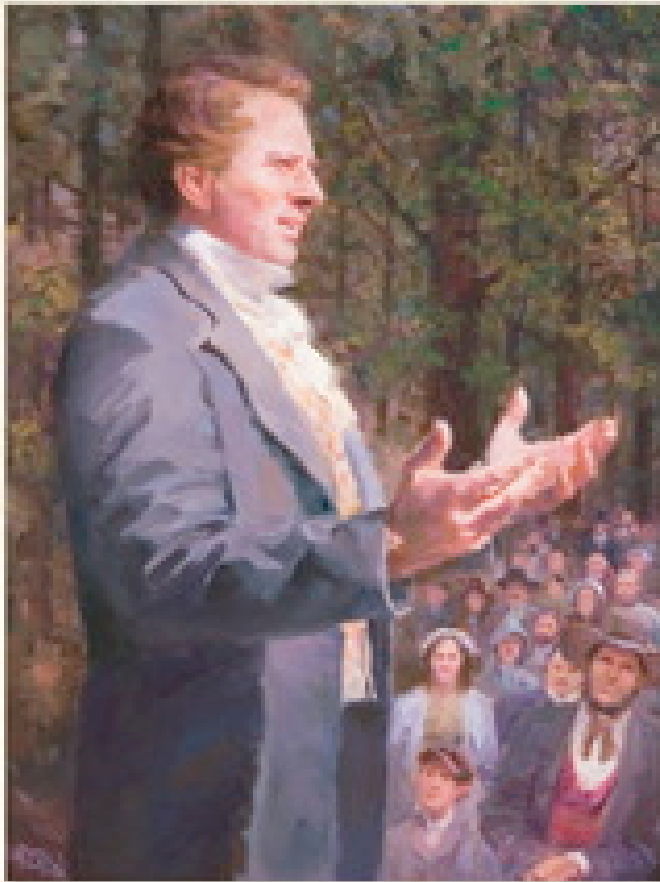
내가 기억하는 조셉 스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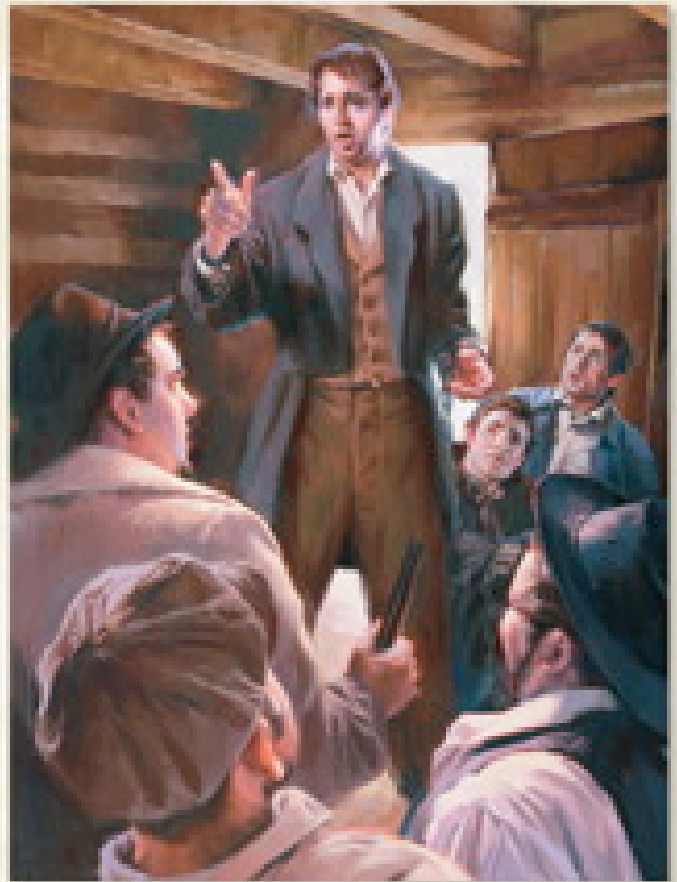
조셉 스미스, 윌리엄 배타커 © Desert Morning News, 북서 금지

선 지자 조셉 스미스를 알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조셉과 함께 했던 경험들을 기록으로 남겼다. 선지자 조셉에 관한 이러한 일화들을 선지자를 소재로 한 미술 작품들과 함께 실었다. 일부 일화들은 미술 작품이 묘사하는 시기와 대체적으로 일치하기도 하고 어떤 일화들은 훨씬 이후의 것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한 인간이었던 조셉의 삶의 단면을 보여준다.

선지자의 사촌이었던 제시 엔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셉 스미스님 제가 본 사람들 중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 저는 그가 천성적으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며, 가장 친절하고 마음과 숭고한 인격을 지녔다는 것을 압니다. 그를 대할 때 저는 그가 저를 완전히 꿰뚫어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¹



숄 속의 조셉, 에이미 디스, 교회 역사 미술 박물관이 합의를 얻어 개작함



리처드 린데에서 강해를 꾸짖는 조셉 스미스, 샘 윌러

오른쪽: 에머린 블란시 웰즈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안을 가져다 주는 위대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깨달았다. ...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능이 너무나도 충만한 나머지 그는 종종 변형된 것처럼 보였다. ... 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²

맨 왼쪽: 선지자 조셉은 종종 숲 속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아마사 포터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저는 나부 성전 서편에 있는 숲에서 큰 무리의 회중 앞에 일어서서 설교하던 선지자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조셉은 모든 후기 성도들이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으며 의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간구함으로써 성령이 그들에게 그것을 밝히 드러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³

왼쪽: 팔리 피 프랫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미주리 주 리치몬드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에 관해 기록하였다. 그들은 수 시간 동안 간수들의 신성모독적 발언과 저속한 말을 견뎌내어야만 했다. “갑자기 [조셉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마치 천둥 같은 목소리로, 포효하는 사자처럼 [나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다음과 같이] 외쳤다.” “조용히 하라!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조용히 하라.” “검에 질린 간수들은 ... 조셉에게 용서를 구하며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⁴

나의 종 조셉, 리즈 웨일스, Foundation Arts, 복사 금지





작품을 위안공, 리즈 레몬 스웨들, Foundation AIS, 복시 공진

위: 머시 알 톰슨은 선지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와 그의 아내 에머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갈 때 그가 마차에서 내려 나의 어린 딸에게 들꽃들을 따다 준 것을 기억한다.”⁵

위 작은 그림: 본 작품은 하이럼과 조셉 스미스가 막대 당기기를 하는 모습을 담았다. 모사이야 엘 헨콕은 이렇게 기록했다. “조셉 형제는 누구에게든 막대 당기기 시합을 제안하곤 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사람씩 모두 당겨서 일으켜 세워버렸다.”⁶



나부 군단을 소집하는 조셉, 시 시 에이 크리스티슨, 브리검 영 대학교 미술 박물관의 허락을 얻어 게재함.

왼쪽: 유니스 빌링스 스노우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행진하는 나부 군단의 진두에서 말을 타고 있는 선지자와 ... 그의 아내 에머 헤일 스미스를 보았다. 하얀 피부의 조셉과 거무스름한 피부의 에머는 아름다운 승마 복장 차림이었다. 그는 군 제복을 입었으며 그녀의 승마복에는 금색 단추가 빛났다. ... 그가 즐겨 타던 말은 찰리라고 불렸던 덩치 큰 흑마였다.”⁷

오른쪽: 팔리 피 프랫은 이렇게 회상했다. “1837년 2월 21일, 나는 사도로서 맹세와 성약을 맺었으며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그리고 데이비드 휘트머의 손에 의해 엄숙하게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사도의 직분에 성별되고 성임되었다.”⁸

아래: 루시 워커 김볼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그는 ...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드러내 주신 원리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 나는 그가 자신의 간증을 피로 인봉하리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⁹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벨기세텍 산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 교재, 2007), 49쪽.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502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117쪽.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351쪽.
5. 머시 알 톰슨, “Recollection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Juvenile Instructor*, 1892년 7월호, 399쪽.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31쪽.
7. 유니스 빌링스 스노우, “A Sketch of the Life of Eunice Billings Snow,” *Womans Exponent*, 1911년 9월호, 22쪽.
8. 팔리 피 프랫,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팔리 피 프랫 이세 편집(1937년)*, 95쪽.
9. 워커 김볼, “Lucy Walker Kimball(Autobiography),” *Womans Exponent*, 1911년 11월호, 34쪽.



팔리 피 프랫을 사도로서 성별하는 조셉 스미스, 윌리엄 레인 © 2002 FFI



산지는 영을 갖추고 있을지언니 나뭇잎 대부분 매자기로 사라졌었다. 해럴드 윌슨, 루시 김지

가진 것은 적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수엘리 데 아퀴노

그 해에도 어김없이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는 풍족한 음식과 장난감을 향유할 여유가 없었다. 아빠가 돌아가셨고, 홀로 되신 어머니는 몇 푼의 유족 연금과 적은 금액의 집세를 받기 시작하셨다.

우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모여 있었다. 거실에는 적막이 가득했다. 그때 갑자기 건물 밖에 누군가가 온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벌떡 일어나 창문에 드리워진 블라인드 사이로 건물 입구를 응시하였다. 내 시야에는 집 없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다. 할머니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가방 몇 개를 손에 들고 계셨다. 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분의 행보를 잠시 지켜 보았다. 할머니는 작은 종이 주머니 속에서 과자 몇 개를 꺼내어 드시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또 다른 작은 주머니를 꺼내 들고는 그 안에 든 동전을 세기 시작했다.

어린 나의 마음은 연민으로 가득 찼으며 조용한 음성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바깥에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이리 와서 보세요.” 그 광경을 보신 어머니 역시 마음이 안쓰러우셨는지 나더러 얼마 안 되는 돈을 넣어 놓았던 깡통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파트를 나서신 후 건물 복도에 난 창문을 통해 소리 없이 지폐들을 떨어뜨리셨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적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보다 덜 가진 이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돈이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 집 창문을 통해 보았다. 할머니는 지폐가 한 장, 그리고 또 한 장,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시고는 돈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아보려 건물 창문을 올려다 보셨다. 그러나 창문들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때 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다. 할머니께서 주름 가득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뻗은 후 다시 가슴에

모아 쥐고는 그분이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창문 블라인드 뒤에 몸을 숨긴 채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적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보다 덜 가진 이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

대륙을 가로질러 온 캐롤 소리

헤더 비첩

하 상 우리 가족에게는 음악과 노래가 매우 중요했다. 어린 시절, 여동생이 피아노 반주를 하면 나와 나머지 다섯 명의 동생들은 피아노 주위에 모여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들을 부르곤 했다. 이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추억 중 하나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가족들 근처에서 살다가 마을의 미 공군 기지에서 복무하던 멋진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다. 결혼 후 1년 반이 지나 남편과 나는 2개월 된 우리 딸과 함께 대륙 반대편에 있는 다른 기지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 우리는 곧 둘째를 가졌고, 두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가족들을 찾아볼 수도 없었다. 그때까지도 여섯 자녀를 돌보셔야 했던 부모님들도 우리를 찾아올 여유가 없으셨다.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살고, 남편마저 군복무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게 되자 나의 외로움은 날로 커져만 갔다. 명절 때는 더욱 더 견디기가 힘들었다.

1990년 성탄절 전야, 우리 부부는 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성탄절 전야에 늘 하던 전통적인 행사들을 치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머릿속에서 맴도는 부모님과 동생들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나는 시계를 바라보면서 지금쯤이면 모두들 마루 위에 정성스럽게 깔아 놓은 담요에 둘러 앉아 우리가 “성탄절 진수성찬 소풍”이라고 부르던 과일, 미니 소시지, 치즈, 크래커를 먹으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경전 구절을 읽어 주시는 것을 듣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가족들의 얼굴 하나 하나를 마음 속에 그려 보았다. 그러나 그곳에 내 얼굴만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상념에 젖어 내 마음이 가족들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다. 그때 갑자기 전화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전화였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들려줄 것이 있다고 하셨다. 스피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세 명의 여동생들이 우리 집 피아노 주위에 둘러 서서 성탄절 캐롤 “내게 들리는 소리 당신도 듣고 있나요?”를 부르는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흘러나왔다. 남편과 함께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3중창의 화음 소리를 듣던 나의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가득 고였다. 마치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는 기분이었다.

동생들이 불러준 그 꾸밈없는

동 생들이 불러준 그 꾸밈없는 노래 덕분에

성탄절 전야 밤, 우리 집에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사랑의 영이 가득 찼다.

노래 덕분에 성탄절 전야 밤 우리 집에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사랑의 영이 가득 찼다. 그 해 성탄절에 받은 모든 선물 중에 으뜸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상점에서 구입하여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이름을 쓴 물건들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노래였다. ■



내 생애 최고의 성탄절 선물

케티 테레사 오르티즈 데 아리스멘디

내가 겨우 두 살이었을 때 어머니는 중병을 앓으셨다. 어머니는 나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볼리비아 투피자에 있는 병원까지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어머니는 나만 홀로 남겨 놓은 채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유년기와 청소년기 동안 내내 이곳 저곳을 전전하며 여러 사람의 손에 떠맡겨졌다. 나는 가족이 무엇인지도 몰랐으며 생일에도 성탄절에도 선물 한 번 받아 보지 못했다.

혼자 버려진 나는 자라나면서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에 직면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는 나를 언제나 돌보아 주었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고 결코 혼자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나는 한 후기 성도 가정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 집의 딸은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는데 하루는 나를 상호향상회 모임에 데리고 갔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반겨 주었고 내게 관심을 가져 주었다. 어린 나이의 나는 생전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친절을 느껴 보았다.

그 후, 나는 선교사들을 소개 받았고 복음 토론을 시작했다. 나는 곧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과 그분께서 나를 언제나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1978년 성탄절 전날에 침례를 받았다. 그날 저녁 나는 나의 처음이자 가장 소중한 성탄절 선물을 받았다. 바로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선물들이 뒤를 이었다. 2년 후 나는 교회의 회원이 아닌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를 교회에 데려왔고 그가 침례 성약을 맺은 후 우리는 결혼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세 명의 자녀를 축복해 주셨으며 우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에서 헌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사람들은 모두 나를 “불쌍한 고아 소녀”라고 불렀다. 이 기억을 되살릴 때마다 나는 감사함을 느낀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축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맛보았다. 전세에서 선택 받았으며 부지런히 수고하여 몰몬경을 번역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셨다. 나는 몰몬경에 충만한 복음이 담겨있음을 안다.

나는 열다섯 살 때 내 생애 처음이자 최고의 성탄절 선물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 줄곧 주님의 친절하신 자비를 느껴왔다. 나는 내 가슴 속에 여전히 그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며,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에게 감사드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살 그 날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 ■

그 날 저녁 나는 나의 처음이자

가장 소중한 성탄절 선물을 받았다. 바로 주님의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이었다.

우연한 가르침

에린 윌슨

직 장을 위해 뉴욕으로 이사한 후 12월의 어느 날, 나는 새로운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려고 밖으로 나갔다. 폭풍우가 도시를 강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라 길에 쌓인 눈은 무릎 높이까지 왔다. 나는 따뜻한 오리털 코트로 몸을 단단히 두르고, 휴일 쇼핑을 나온 사람들로 북적대는 지하철을 타러 갔다.

쇼핑할 목록들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맘으로 열차를 기다렸다. 열차가 도착하자, 나는 전동차에 올라 앉을 자리가 있는지 둘러보았다. 가장 가까운 빈자리는 한 늙은 노숙자의 바로 앞자리였다. 그는 따뜻한 코트나 두터운 옷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잠동사니로 가득한 몇몇 비닐봉지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그와 가까이 앉고 싶지 않았고, 그의 단정치 않은 모습 때문에 혹시 그가 위험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가 나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기를 바랐다. 급하게 나는 전동차 반대편으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역시 반대편으로 줄지어 갔고 그는 홀로 남겨졌다.

그 때 한 젊은이가 열차에 올라 그 노숙자의 바로 앞 자리에 앉았다. 주저함 없이 그 젊은이는 그에게 미소를 짓고 악수를 하며 기분 좋게 인사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고, 그들은 기분 좋은 대화를 시작했다. 그들은 그 후 15분간 이야기했고, 서로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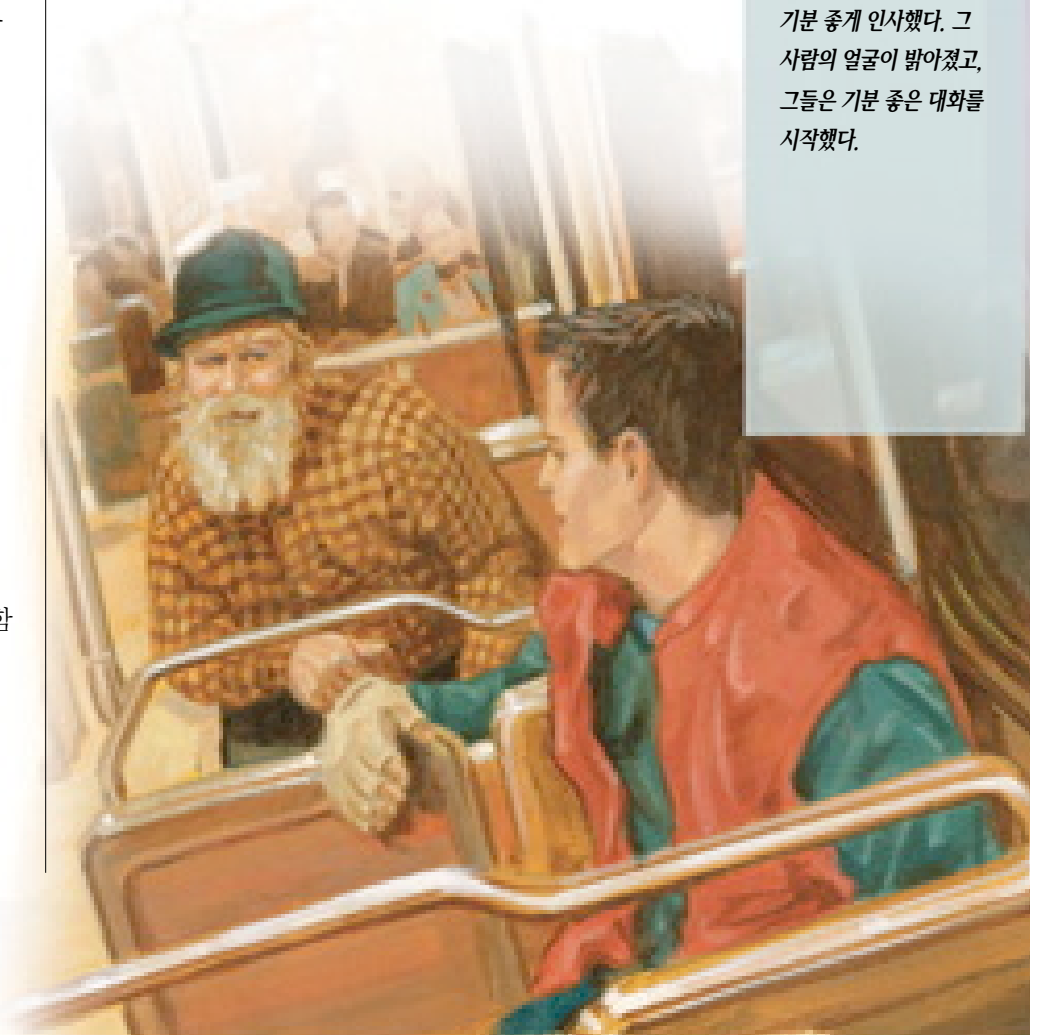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나는 진정한 성탄 절기의 영에 대해 기억할 수 있었다. 그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그 젊은이는 일어나 그의 조끼와 셔츠, 그 안에 입고 있던 또 하나의 긴팔 셔츠를 벗었다. 셔츠 하나만을 입은 채 그는 긴팔 셔츠를 그 노숙자에게 주었다. 그 노인은 기꺼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고 둘은 대화를 계속해 나갔다. 나는 그 젊은이의 친절함에 감동 받은 채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다. 나는 내 이기심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만왕의 왕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환경에서, 초라한 마구간에서 나셨다.

값진 구원의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 구주라는 선물이 내 삶에 주어졌음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동정을 내가 기억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그 성탄 절기에 나는 좀 더 친절해지고, 좀 더 비기이적이며, 좀 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꼈다. ■

주 저함 없이
그 젊은이는
그에게

미소를 짓고 악수를 하며
기분 좋게 인사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졌고,
그들은 기분 좋은 대화를
시작했다.





메시지에서 힘을 얻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금식을 하던 저는 2007년 7월호 *리아호나*를 펼쳤습니다. 저는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의 생애에서 나오는 “악한 영향력에 대항함”이라는 이야기를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통 그 부분은 친구들란에 나오기 때문에 이전에는 잘 읽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그날 저를 둘러싸고 있던 나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저는 그 메시지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리아호나*의 모든 부분을 읽기를 권유합니다.

*리아호나*는 저에게 빛이자 보호자입니다. 그것은 제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아렛 아지, 아이보리코스트

최고의 비결

하루는 청년반 공과를 준비하면서, 저는 공과에서 보조 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훌륭한 청소년 지도자들의 숨겨진 최고 비결인 아론 신권 및 청년 참고 지도서를 펼쳤습니다. 이 안내서들은 선지자와 다른 총관리 역원들의 최근 이야기와 말씀들을 담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오늘날

겪는 문제들을 돕기 위해 청년과 청년반 공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지도자로 봉사하는데 커다란 격려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과 말씀들이 올바른 경로를 통해서 왔으며 참된 교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들로 공과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보조 도구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넬 웰스, 미국 유타주

가장 좋아하는 부분

*리아호나*라는 훌륭한 출판물을 갖게 된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이 잡지 덕분에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겪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잡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후기 성도의 소리입니다. 이 훌륭한 이야기들을 읽을 때 저는 영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PDF 형식의 *리아호나* 잡지를 제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사 하나를 읽습니다. *리아호나*에 감사합니다.

오스카 하비에르 알바레스 고메즈, 콜롬비아

효과적인 도구

저는 *리아호나*가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세계 도처에 있는 회원들의 간증과 경험을 듣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지도자들이 전하는 권고를 받고 다른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말씀은 살아 있는 안내서입니다. 또한 이 잡지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리스 아돌프, 리우니온 아일랜드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일회장단과 총관리역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알았습니까?”라고 묻고 싶었던 적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연차 대회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마치 제가 가지고 있는 특정 문제에 대해 주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고 느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얼마나 돕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주 먼 곳에 있을 때에도 저는 연차 대회 메시지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 메시지들이 회개하라는 알림이 되었고, 안내자 역할을 했으며, 위안을 주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그분이 가장 아끼는 자녀라고 종종 느꼈습니다.

찰린 크렌쇼우, 미국 몬태나주